

上太上感應篇圖說卷之五目錄

感應篇

卷五

仁
2476
5-5

太上感應篇圖說卷之五目錄

婦人善報

顧成媳錢氏

雍有章妻楊氏

章得象夫人

袁了凡夫人

婦人惡報

龍游民妻 福建衛氏

楚春卿妻許氏

陳一清妻 李守妻

郭引鳳 張易之母

趙士周妻

顧德謙妻張氏

張士伯妻陳氏

楊誠齋夫人

范軍士妻

崇德張氏 徐甲妻陳氏

杜昌妻 陳氏

赫連傑妻 使女緋桃

王莽妻 楊太真



目錄

放生戒殺善報

蔡襄

楊寶

沈文寶

韓永春

李冲元

蕭寺丞

危素

宋郊

張自有

天妃宮僧

放生戒殺惡報

許憲之子

王屠

龍山軍人

王遵

楊舜臣

吳桓

張易之

方術惡報

楊阿剌

徐鑿生

江充

孫公綽

王萬里

宋子賢

廖德明

顧成媳錢氏



感應篇

五

婦人善報

晉陵城中顧成娶錢氏女為媳媳寧母家時疫勢甚盛轉相傳染有一家數口皆斃者有巷不畱數人者令人神悸股慄病者親戚不敢過問成先得是疾諸子及婦凡八人俱伏枕待命媳聞迫欲趨視父母力阻之媳曰夫之娶妻原為翁姑生死大事今翁姑俱篤忍心不歸與禽獸何異吾往即死不敢望父母顧也隻身就道明見鬼物相語云諸神皆衛孝婦歸矣吾等不速避謹不小八人俱得活此順治甲午三月事

던능성중의사는고성이라하는사람이전시의너를취하여며느리를숨앗더니그후의며느리맛춤친정의귀경한지라이척너여이되리하여석로전염함미한집에슈삼식귀모다물스흔자도잇고흔동나의두어사람이남지못함은

도잇스니사람마다모물이송연하여병든지잇스면친척이감히못지못하더라이석고성의부자와녀아오로여래사람이음의병들어죽기를기르린썩은이라친시드고급히도라가구하려함식그부외힘뻐만류하니친시왈지아비척를취함은그부모의스성리스를위함이라이제구과아오로병이급함거늘어지춤아도라가구호치아나리요곳가쳐죽더라하여도부모의돌보물브라지아나리이다하고든여다신으로길의올나구가로도라갈시백주의잡키잇쳐로말하여왈이제모든신령이효부를호위하여도라오니우리들이썩은니외치아나하면큰죄의밋치리라하고다하여적가나이라므로여래사람이인쇄이병이노혀죽기를면함나라

顧德謙妻張氏



鹽官縣顧德謙妻張氏夢神告曰爾以宿孽明日當遭雷
 火張醒聞雷自分必死嘿想曰死固不免奈姑老驚恐何
 遂換衣出門遠立桑樹下俄聞空中有聲曰此念上帝已
 知特赦汝死矣既而天果開霽張遂無恙

고막 검은의 처장시 꿈의 신령이 날 너와 내 편 되 죄로 인
 하여 명일의 맛당이 번 번을 밧으리라 하거늘 놀나 씨
 나 뇌정 소리 나느니라 스스로 혜오디 죽기느진 실로 노며 치
 못하러니와 다만 두리 건디러은 식어미 날 노인 하 여늘
 나리라 하고이의 권흔의 보기를 갈아 내고 문은 나 열
 니 쇠기 드리 너니 이 응하 여 공중의 소리 이 쇠 날 너의
 메 식어 미르 놀닐 가 념 너 하 여 멀니 괴 하 니 이 뜻은 사
 발 쇠 알 으 시 고 대 죄 를 사 하 시 나 라 하 고 인 하 여 무 사 하 나 라

雍有章妻楊氏



文昌化書曰漢水之源孝婦曰楊靚中衣冠之後也適寒
 士雍有章早折靚中誓不他適姑老且病媒灼日至靚中
 曰人所慕色與財耳妾家素貧可無大過今媒言不已意
 以妾年齒未衰血氣尚盛身無惡疾耳妾豈忍棄晚年姑
 忘結髮夫革面事他人乎乃斷髮覆面以婦工自給如是
 六年姑死禮葬之三日復祭有盜乘其出踰墻啓鑰盡攜
 所藏靚中未知也家有土地白致一與邑里正神康潮王
 欲治之適會予來褒中就以報予遣陰兵三千執盜于市
 舉所竊歷倍於人曰此節婦楊氏物也當還之已而盜啣
 十指盡而死

문창화서원화서의글와시되한슈우희한요부잇셔성
 명은양정중이니스족의후예라가난은현비용유자

의게식지법갓더니 유장이일즉 죽으리 짐은 죽음이 밋이세
 흥여곳 취드르되 가지아니려흥니이척식어미느러고도흥
 병들었는지라 죽음의 무리 날마다 나르러드르아의호
 흥거늘 짐은 죽음이 크오디 사람이스모흥는바는식과지
 들이라이제너지법이가난흥니 지물은 취흥를비아니여
 죽음의오물마지아나흥니이느라만나의나히침고쇠
 치아나흥옛시며현과오히려형흥고몸의몸슬병이어디
 스미나엇지노병흥식어미를비리며결발흥지아비르
 이고얼골을고취드르사람을섬기리요흥고인흥여머리
 러러흥은흥머얼골을러혀고침천으로췌성이를삼았더
 나그후죽년만의식어미죽은지라네로배장스흥고삼일
 후의드시제흥려분묘의갓더니도적이그나가물승간흥

여담을넘어들어가잠근거슬열과가장을다도적흥여가
 니침중이미취아지못흥엇더라그집의토지신백치일과
 그마을침신강조왕이정이드스리고적흥더니이척의니맛
 츠모포중의니르니모든신령이닐노배보흥엇거늘죽
 시음병삼천흥보내여그도적을적지의척자아적로
 흥여곰스스로말흥게흥시그도적이스스로도적흥무런
 흥드러어사름을뵈며글흥이거스철부양시의거심
 맛당이도로가적다죽리라흥며스스로제열손가락을너
 흥러어브리고죽으니라

張士柏妻陳氏



崇禎末年吳江縣民張士柏妻陳氏少寡而艾士柏兄士松謀嚮與里豪徐洪爲妾陳氏不知也士松料其志不可奪先令鄰嫗俞姓者托故假宿夜統羣兇擁入擄往舟中陳號慟抵死凜不可犯陳之父陳俊訟之於縣縣令章日灼寢閣不行再訟於直指路公振飛徐洪又賄某鄉宦飾詞以進反坐陳以罵夫之律拶指批頰繫之獄中陳飲泣絕粒者三日適司李至聞冤而出之率陳氏等入見直指泣訴冤狀隨即持刀自刎血湧仆地路公急下堂拱揖許以雪冤目乃瞑直指即日拜疏上聞諸兇輕重抵罪士松徐洪等立斃杖下縣令貶斥至郡辭任滿船鬼聲次日死矣俞嫗篤疾不滿三日亦暴死某鄉宦之婪賄囑託者粹病瘖瘖終其身不能言時有記傳輓歌無不嘆爲異事并

驚傳冥報之速如此

兪靖말년의오강현박성장스백의척진시소년과거하고
 용외또아름다운지라스백의형스송이니웃사름석흥의
 계파라아침밤을삼계흥은진시의순종치아니흥은준알고문
 려니웃제집유파를시켜죄집의연고이심을칭락흥여진
 시의곳의머무르다카니응흥계흥고밤의여러사름으로더
 부러그집의돌입흥여진시를잡아가라흥니진시부르지
 지며동공흥여죽기로백쳐두니괴세능연흥여감히범치
 못흥더라진시의아비진준이고을의송스흥니현령장은일
 기그닐을물니치고척결치아니흥은지라드시직지어스노공
 진비의계송스흥은석석흥이또회되를만이배동니벼슬흥
 는사르단의계척흥축흥여진시를어려거아르소흥되지아대를

유하다흥여악흥은더이고옥장의슈금흥니진시
 동한음흥여척근고흥지삼일이라맛춤본고흥
 옥가은마는관원이니러러원동흥흥을알고즉시진시
 흥은드리고직지어스노공을쳐스볼시진시원어흥공
 절은하리고즉시칼을가쳐스절흥니괴소치며눈을
 부릅뜨고척희어버리지라노공이크게놀나급히당의
 너공슈장음흥고철원흥기를밍쇄흥니그눈을바로소
 감는지라즉시조정의주문흥고모든흥흥인을스스리시
 스송과석흥은장하의죽이고현령은평출흥여도라
 갈서치일의폭스흥고유과는도그질을어어삼일이모스흥
 여죽고회되백고침흥축흥여준저는졸연병들어종신
 도로말을못하니명스의보응이스스치셔르더라

章得象夫人



郇公章得象之相仔鈞蒲城人也仕閩王審知守建州領
 兵拒南唐遣邊鎬王建封求救二人失期當斬章意未決
 夫人練氏曰既惜其才何不從寬密令遠遁復使諸子遺
 之以金二人遂奔江南後南唐命查文徽攻建州二人已
 貴從行城陷議屠之時仔鈞卒練氏存二人入城厚遺練
 氏金帛且授一白旗曰植此於門可保無虞練氏舉金帛
 并旗反之曰妾當死建民何罪非盡赦建民妾不獨生二
 人請之一城皆免練氏後封越國夫人子十五人親出者
 八孫六十人皆貴曾玄位卿相者相踵

순공장득상의조부조관은포성사리이라민나라의벼
 슬하의건주리직희고스리거느려남당을막을
 시변호와왕건봉으로하어금구완을칭하라보되

엇더니그두사람이과약을어과우니군법의맛당이버
 힐지라조간이조못뜻을결치못하여오리주저하거늘그
 부인런시조오디그적이미그두사람의저조를슬라오호
 여죽음을앗길진다엇지보녀멀니드라노게아니하
 노요호니조간이올히녀두사람을보녀도망게호고
 시아드름을보녀여급을주어천송호니두사람이남당으
 로드라나크게귀하엇더라그후의남당스문휘를조츠
 건주를칠시성을과호미모든의논이무지르려호는지
 라이셔조간이미죽고런시제조로더부러성중의이
 더니그두사람이성의드러가금빙으로뻬런시의게하
 슈하고또힌과호나를주어와리이거슬문밖괴조면
 가히이르문을보천호리라하거늘런시금빙과고과

르도로주어와리침범은죽어도맛당하거니와전주빙성
 이무소죄잇스리오전주빙성을모도슬오지못할지
 디침범이라오이호른노슬지아니려호노라호니두사람이
 의호여죄인의게칭호나일노말미암아전주일성이
 화라면호나라그후의런시월국부인봉작을받고
 아느십오인의친성호비여드래사람이오손저후시비여
 인이모다귀히되고중손현손의지상벼슬호는지셔로
 이엇저라

楊誠齋夫人



宋楊誠齋萬里其夫人年七十餘每冬月黎明詣廚親視
 作粥一釜徧食僕婢始令服役其子東山先生曰何自苦
 為夫人曰奴婢亦人子也晨寒須腹中有火氣乃堪役耳
 東山守吳興夫人于郡圃種苧躬紡績為衣時年八十矣
 平居首飾止于銀衣止于絹四子三女悉自乳有勸募乳
 母者夫人曰飢人之子以哺吾子忍乎哉誠齋父子極貴
 家惟木椽土階如田舍翁無所增飾

송나라 양성지의 일흠은 만리라 그 부인이 년이 칠십여외
 의 미양저을 날을 다 응면 일즉 니러나 부역의 나아가 친
 히 죽을 뷔어 비복등을 난 화 먹이고 비로 소스역은 식이
 나날마다 법이 되엇더라 그 아들 동산 선성이 간응여왕
 엇지 스스로 괴로오미 이러트듯하시니 나이고 부인왕 노복도

또 후한 사람의 죽식이라 시벌날이 칩기아러 후고 빛속이 비
 엇거늘 화괴를 먹지아니 후면 병이나 기취우려나 뒤어지슈
 고를 앓기리오 후더라 동산이 벼슬 후여 오 후을 진히엿실
 시부인이 그 고을 후원 의 모시를 심겨 몸소 길삼 후나 이덕
 나히 팔십이 되 여더라 상히거 후면 머리의 은으로 후는 식
 뿐이 오 오스 후나 르르 브지아니 후고 스스 삼녀를 길로 미모다 친히
 첫머이느라 사람이 후유 모르 두라 천 후면 부인이 불가
 후여 왈 남의 아 들을 주리 재 후고 니아 들을 먹이 미후 아
 엇지 후르 비리요 후더라 후의 성저의 부적극히 귀히 되 엿시
 나 집이 오직 도계 모스 후여 완연이 농가 모양이 오일즈
 사치 후음이 여더라

袁了凡夫人



哀了凡初無子後生儼其母爲作襖將買絮公曰絲絲輕
 煖家中自有何必絮母曰絲貴絮賤吾欲以貴易賤多製
 絮衣贈族中寒無衣者公喜曰誠如是此子壽矣後儼登
 進士

의친고범이 처음의 무릇 후더니 후의 아들은 어름을 낚는 지라 부
 인이 아희 오솔 지을 시장 초소음을 스려 후는 리공왕이면
 직가 뷔얍고 더우며 또 후는 집의 잇는 비어 볼 구 후 여 소음
 을 스려 후는 노부인 왈 면저는 감시 귀 후고 소음은 감시
 친 후니 귀 후는 거스로 뷔 힐 후는 거솔 밧고면 소음 오시 만 후
 지니 글노 뷔치 위 후는 주속을 쥬려 후노라 후니 공이 깃거 왈
 진실노 이러 후면 이 아희 장수 후리라 후터라 그 후 원어미
 장성 후 여 진스 급제 후니라

范軍士妻



婦人善報

鎮江衛左所軍士范某妻患瘵疾瀕死遇道人與之藥云
 用雀百頭以藥米飼之至三七日取其腦服之當差然一
 雀莫滅也范如教買雀養之有死者則旋買之以充數未
 旬日范以公差出妻觀雀嘆曰以吾一人殘物命至百甚
 不仁也吾寧死安忍為此乃開籠放之夫婦怒責其妻亦
 不悔已而病瘵初久不產育是年忽有娠生一男男兩臂
 上各有黑誌如雀形一飛一俯而啄羽毛分明不滅刻畫
 진장고을 좌초군수범가의 처고지려범으로 죽기의 니러렸더
 나호로인이잇셔약을주며니러리참시범마리러잡아
 약을별의셔거먹이고삼칠일이되거른그외고을의여
 으면맛랑이나흐리니범의셔하히부조호여조호힘이
 업스리라호거늘범고말려로호여참시범슈를잡아
 기러시호죽는거시이스면는시잡아그슈를치오더라슈
 일후범기공수로인호여잠간나갓더니그체를보고
 다시호여왈호사람을의호여범여모수함을상히오
 미어진도리아니라니차라리죽을지언정엇지참아이러
 호니범을호호리요호고죽시농을여러모다호니라그
 아비도라와보고노호여죽기를마지아니호되그체를
 웃지아니호더니오리지아니호여그병이절로나고호
 의생산치못호더니이희의호를연잉티호여아름을
 니그아히두팔우희각기름은점이스되맛치시
 상호호여호호날고호호호니모양이분명호
 깃과털이호회호도호리미어되다

居履錄 五

龍游民妻



宋時龍游民妻吳氏與姑爭飯婦遂持飯傾與豬啖之須臾雷電大作擊二兒於床上其婦與豬俱擊死當門

송나라 석의 풍유록 백성의 처우가 잇서 어머니로 더부러 밥
 을 드스도 더 나오시 노후 여그 밤은 아사가지고 뜻희 구유의
 쏘다 돛츨 먹이더니 이은고 뇌경이 크게 나러는 며오시
 두어린 자식으로 더부러 그 돛과 으오로 벽 너의 마자 죽
 으니라

居履錄 五 婦人惡報 十四

福建衛氏



福建漳浦有衛氏者妯娌三人最不孝日以惡言唆鬪其夫忽一日雷震一聲化為牛羊犬三畜惟頭面不變雷神現於空中觀視良久而後隱三畜見人口不能言惟低頭垂淚而已

복견장포석히의가형테의최동서삼인이잇시니모다 불효하고또호스오나와그지아비를부축하며몸을말고노니간하녀형테로하녀곰서로빛호제하더니일일은호른연외경소리니러나머되신이공중의잇서삼동서를잡아일시의변형하니하나흔소의몸이되고하나흔양의몸이되고또하나흔기몸이되엇시되그얼굴은변치아니하녀사름을보미눈물만흐를나더라

崇德張氏



崇德張氏家貧食麥其婦以麥不可口旦夕怨罵鄰姬勸
 之曰凡為婦者或貧或富一隨其夫至於食取充腹而已
 何怨為其婦不聽怨聲不絕一日取麥晨炊麥悉化蝶飛
 去婦即患心痛數日而死

승덕장시집이가난하여보리로낭식하니그며느리님의
 맛지아니라하여날마다욕하여원망하느니라니웃노피
 리유하여왈너즈의도리는빈부간저아비를쓰로러거시오
 지어음식은충복을뿐이라어지원망하리요하되그며느
 리종시듯지아니하고원망하기를마지아니하더라일은
 보리를베쳐밥을지은하더니그보리화하여노벽되여스
 면으로노라가며그며느리즉시심통이니러나슈일이못
 하여죽으니라

徐甲妻陳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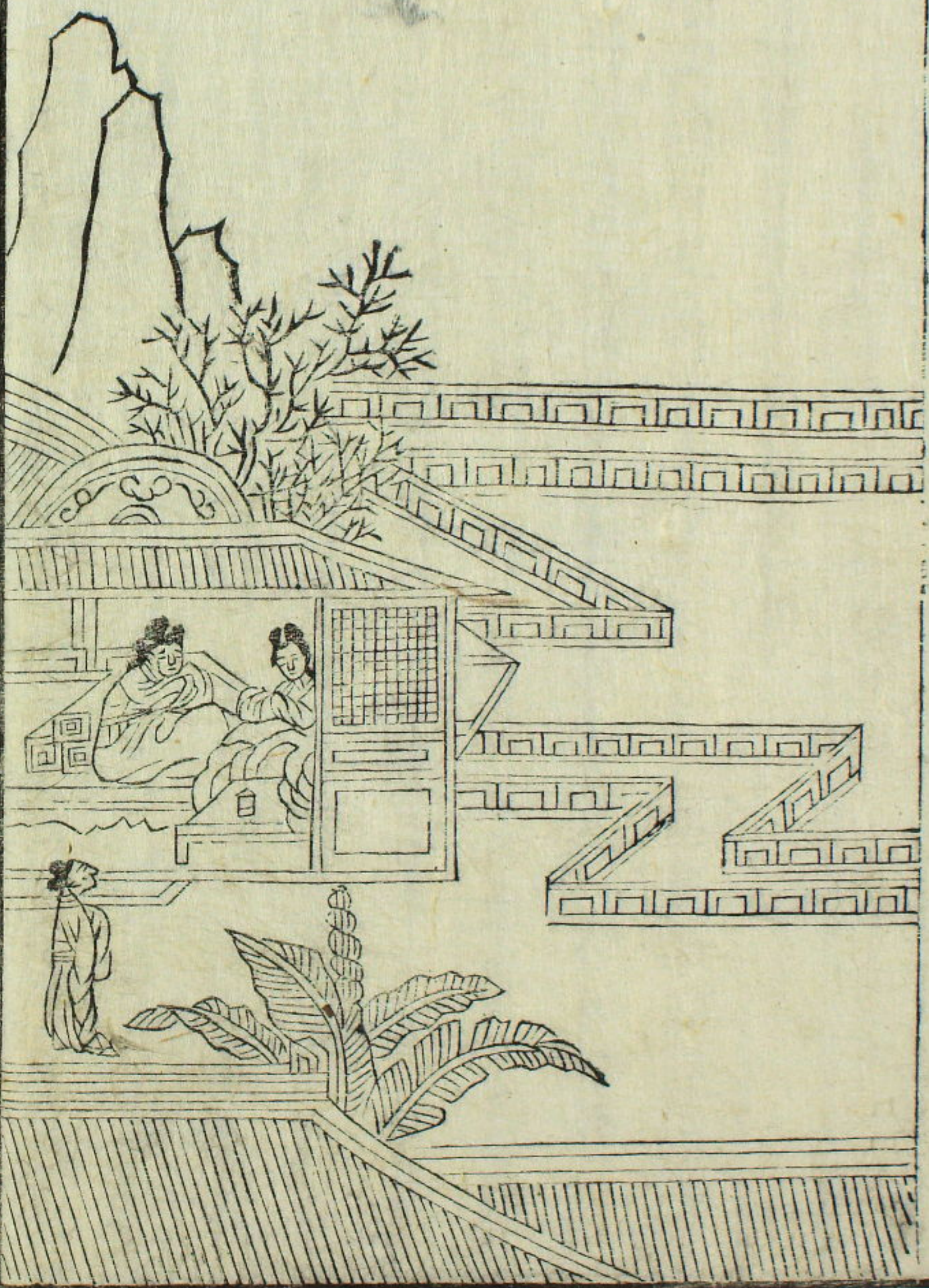


東海徐甲娶妻許氏生一子名鐵白許氏續娶陳氏凶妬欲殺前子陳氏生一男祝曰汝不殺鐵白非吾子也因名鐵杵欲以擣白自是捶打鐵白無所不至竟被創死時年十六亡後旬餘鬼服還家登陳氏牀曰我鐵白也無罪受害我母訴天得天曹符來雪冤責令杵病與我遭苦時同我今停此待之不見其形但聞其聲宛如生時恆在屋梁上住陳跪謝設奠鬼曰餓我令死豈一餐所能酬陳氏夜中竊語鬼云何故說我今斲汝屋棟復聞鋸聲屑落拉然有聲炳燭照之亦無異焉又罵杵曰爾母子殺我今安然坐自悛耶當燒汝屋即見火燃烟爛俄頃自滅茆艸無損于時杵六歲體痛腹大鬼屢打之打處青靨月餘而死

동해의 석가의 처히사 일조를 나흐니 님 흠이 칠구라히

시죽고독시진시를취하니의인이흥함추고하고권취의아
름을죽이고취하니또일즈를나흐미진시죽원하여와는데
침구를죽이지아니하면니아름이아니라하고인의하여날
흠을침침라하니이외침구공이로외침구를찌어라하
는뜻이라일노부러침구를쓰리며보쳐여참후후정상
이무소부지하니필경상동으로죽으니라그후십여일
의침구의귀신이집으로도와진시느려날년와나는침
구라죄업시회를만나시막우리모친이하늘의하소언
하여침원케함시므로하늘부작을어어와시니침침라호
여곰날것차과로오물랑홀지라니이의머우러기르리라
하니그소리완연이슬앗실적고항상집들보우희거
호엇느니라진시크게주려제천을베를고을어사제호
되그귀신와날노하여주려죽게하고엇지호번음식으로
날을갈나리요하고또느되니이집들보를버히리라
하며무든독소리나고독밥이무슈이쳐러지거늘놀나
보니또호관제치아니라또침침라유지적와나의모
지날을죽엇시니엇지홀노안연호리오니이집을불
슬오리라하며즉시불이니러나고연기자우호하니이
음하여스스로써지며집이또호무스하니라이쳐침침
의나히노크쇄라즈조귀신의게마자맛는곳마다푸르고부
르르니슈월이못하여죽으니라

楚春卿妻許氏



楚春卿妻常美娘悍如夫妾春奴乘楚他出遣人捶殺之
夫亡改嫁懷娠將產三日不下委頓將死自見春奴前持
之驚甚曰我初無意殺汝特捶者過耳幸寬我春奴曰捶
我者固不免使捶我者又安得免持之愈急遂死

초춘경의처상미랑이그지아비침춘노를루기하여사름
을보너여느려죽엿더니그후의지아비죽으미르른뒤리가
하여이미잉히하고남산은지삼일의낮치못하여정히의
급하더니홀연춘노압히잇쳐자보고가자하느니라놀나
비러와늘기척음뜻이긋하여죽이려함이아니라특별이쓰리
던사름의허물이니드형이용외하라춘노와날을쓰린자
도면치못하러나와사름을시겨쓰린새쏘엇지면하리요하고잡
기를더욱급히하여죽으니라

杜昌妻



杜昌妻柳氏甚妬有婢名金荊為昌沐浴理髮柳截其雙
 指無何柳被狐刺螫指雙落又有一婢名玉蓮能歌唱杜
 愛之柳截其舌後柳舌瘡爛事急就稠禪師懺師曰夫人
 截婢指截婢舌將爛舌惟至心悔過乃可免禍柳氏頂禮
 哀求經七日禪師令張口有二蛇從口出長一尺以上急
 持呪祝之遂落地舌亦平復後不敢妬

벉적의 두창의 혀 누시 투귀 하미가 장심 혼지라 집의겨
 짐종금형이 잇더니 일은 두창이 목욕할시 금형으로
 여곰머리를 가리거늘 누시되로 하여 금형의 두손가락
 을 찍엇더니 오리지아니 하여 누시독한 버레의 기쁘이여 두
 손가락이 처러 쪼터라 노리 하는 풍오년 이 잇더니 누
 시의 심하되 두창이 사랑하다 하여 오년의 혀를 버렸

感應篇 五 婦人惡報

더니 그후의 기시희의 종과 나침음 뱀은 지라 급히 조선스라
 흥은 충을 은 초스 그 도흥을 구하니 선시와 부인이 흥의 손가
 락을 은 코도 종의 혀를 버혀서므로 이 죄 혀를 알음이니
 장 초뱀 어쳐러질 지라 오직 지성으로 회과 흥면 가히 화르
 면 흥리로라 기시머리 조아 네 흥고 슬피 비러칠 일의 나르러
 는 선시 명흥여 남을 버리라 흥니 두빅암이 잇서 기리 흥
 자 남 죽 흥지라 나뵤로 죽츠 나 오거늘 급히 전어은 넘흥
 나 죽시 후 희 처러지며 희의 병이나 혼지라 기시 일노 죽츠
 감히 르시 투기 치 못 흥더라

陳氏



潤州陳氏子多復孕心甚惡之有藥婆譚媪為陳氏下胎
 甲子年又孕復召譚媪再謀下之藥甫合而未服是夕陳
 氏夢一牛曰我與汝無仇何必欲殺我我將因而殺汝也
 寤而不解竟服其藥血崩月餘死後二年譚媪亦暴卒
 은 주저히진시이되스식이만코또잉뒤하미심히슬희여하느
 지라동니의약팔공의찰하느삼피진시를의하여악만여부
 리하엿더니그후의또잉리하느스삼과를청하여나리하러
 하신이의약을디고미쳐먹지못하엿더니그날밤꿈의하느
 른소이쳐말하여왈너너로더부러인취업거늘엇지날을죽이
 려하노뇨니장춧너를죽이리라하거늘하여그뜻을모로고맛음
 니그약을먹엇더니인하여혈분이되여죽고그후의라미피
 또하노스하나라

陳一清妻



婦人惡報
 二二二

陳一清妻三舉女胎三斃之萬曆甲午夏復產一女置之
 溷器中封其口踰時啓而視之有一紅蛇躍出纏其左股
 牢不可解昂首碎其腹遂與蛇俱斃

뱀적의진일천의체년중여쇄살을나하세번다죽엇디
 니갑오년의또흔살을나하거늘또죽이려호여그릇소
 의니코그릇어귀를봉호엇다가이우호여열고보나호
 여은불근비암이씩여너다라그좌편드리이감기거늘
 크게놀나혜라호나단호여풀길이업느니라드드여비
 암과함의죽으니라

李守妻



李守妻悍妬擊殺一孕妾一日晝寢夢妾獨倚牕樹欲進
 復止恍見化蛇遶樹守妻欲殺之則已失去後夫婦對飲
 月下覺盃中有物如蛇狀燭之不見飲竟不覺明日腹脹
 滿如彌月之孕遂死棺中有聲殮後起視之乃蛇也
 넷씩니슈의체소오남고루기호여일죽죽식빈침을죽
 었더니일일은꿈의그침이창박기이치머무거리다가호연
 큰비암이되여남기감기거늘죽이러호죽간의엄느지
 라그후의부뷔월하의안취술먹더니술잔가온디비암
 의그림지잇거늘본을허고본죽호호형적이어는지라
 드드여마섯더니그후로복중이창만호여만삭호모양이라
 인호여죽고입과호후의관속의무소소리잇거늘열고보니
 이의호큰비암이되여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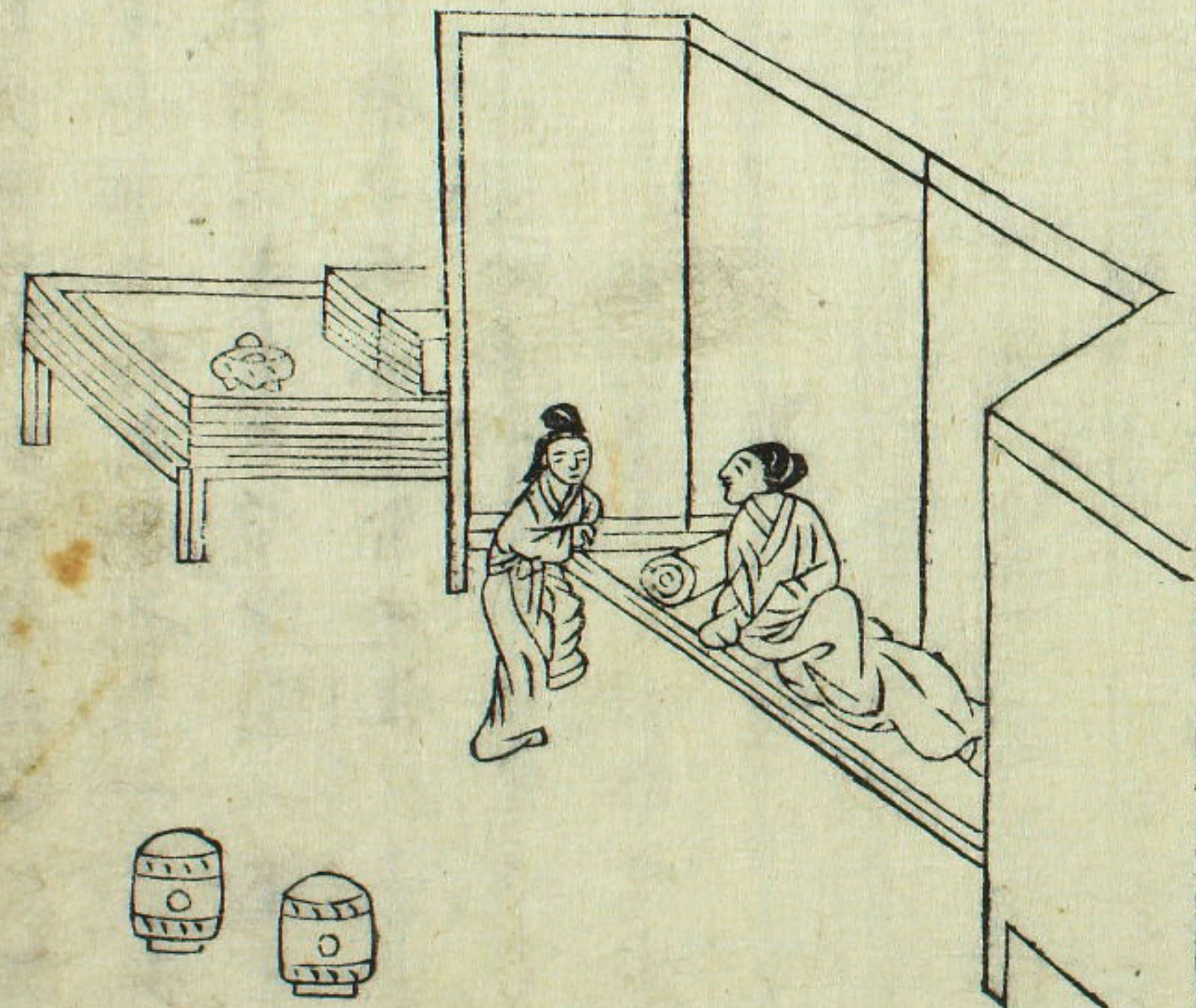
赫連傑妻



巴東赫連侏妻行多慘刻凡僕婦有孕必墮之既生勒令
溺之蓋惡懷抱之勞併妨工作之勤也忽一日見小兒十
數或形骸俱備者或四肢未全者或血團一塊者皆淋漓
血漬爭噬其膚喊叫數日而死徧身潰爛

과동작히헐년걸의취형세참혹하고각박하여무리스비
지잉척흔지잇스면반드시떠르치고혹이마나하시면물
의너허죽이나이노비적고적식보슬피고적먹이노라날의
히로올가흠이러라일은흔연얼나문어린아희혹형
용이맛취니루지못흔것도잇스며혹모양이라된것도잇고
혹피덩이가되혀반쯤된것도잇쳐일시의라라들어살
을물고너흐니일신이무어지고소리지르기를슈일을
하다가죽으니라

使女緋桃



萬曆甲寅淮西某秀才妻某氏房貲頗盛有隨嫁女緋桃
自恃才貌冀寵于主人而專操內柄值主母患痢緋桃欲
乘機斃之謀于靈婆得毒藥數丸將痢藥以進未及逞謀
忽夢中自言曰爾若藥死願謝金飾一匣凡日中所謀夢
中悉自吐露同睡者詰之則曰未嘗有言適腰間有丸藥
墜地又詰之則曰我心悶欲治耳即自取吞之少時便血
直注號呼而死

만년간의 회색 석회 유취의 석사로 장가 들리니 그 신부의
조상 조부모와 사이가 범절이 자못 씩비할지라 그 신부를 좇아
온 계집종이 잇스니 날흠은 비도라스조와 용모를 미
고 그 주인이 은동을 도모하여 가풍 권세를 치지하려 하니
알하상 석의 누엇건 비되고 그 들은 라히코 죽어 약
파를 차지니 날흠을 회고 독약 두어 환을 엮어 나질의 먹
는 약의 한디라 먹이려 하니 맛치 쓰지 못하여 그날 밤의
비되 홀연 잠코 뒤 말노 말하야 글오디네 만일이 약으로 우
리 주모를 먹여 죽일진디니 다행이 은금을 만히 주어 덕공
을 가보리라 하야 그날 약과 회고 회고던 바른 이른히 토설
하니 오치자던 사름이 듣고 이히 녀어 그 말은 힐문하니 디
답하되 일즉 말은 비업다 하디니 맛춤 허리로 회환 약
두어 나치혀러지거늘 그 말하던 약인가의 심하야 드시힐
문하니 비되 말을 꾸며디 일년 맛춤 가슴알이 잇기로 스술로
먹으려 흠이로라 기인왈 연즉어 석 먹은 미가 하도다 하니 비되 마
지 못하여 먹엇더니 이윽고 피를 뱉고 소리를 지르며 죽으니라

感應篇 五 婦人惡報 二一六

郭引鳳



郭引鳳被攝入冥見一婦人鬼卒以鐵丸大如蒸餅塞其口又以百煉銅汁擘口灌之引鳳曰此何罪耶鬼卒曰此人生前好行呪罵

넛적의각닌의설이인봉이맛참병들어죽어명부의드러가니흔녀스름된뒤호로절박하여기동의먹고두어귀졸이것히잇쳐니비을어귀고철환을먹이니그쇠스덩이크기마치쥬먹고흐며또구리를녹여슴을만들어니부의부으니그경상이참분인전이라인봉이무러와월이논무슨죄로이형벌은바스노귀졸와월이사름이쇄양의이실씨의원망하기와욕하고악감하기를도하흔죄라흔더라

感應篇 五 婦人惡報 二二二

張易之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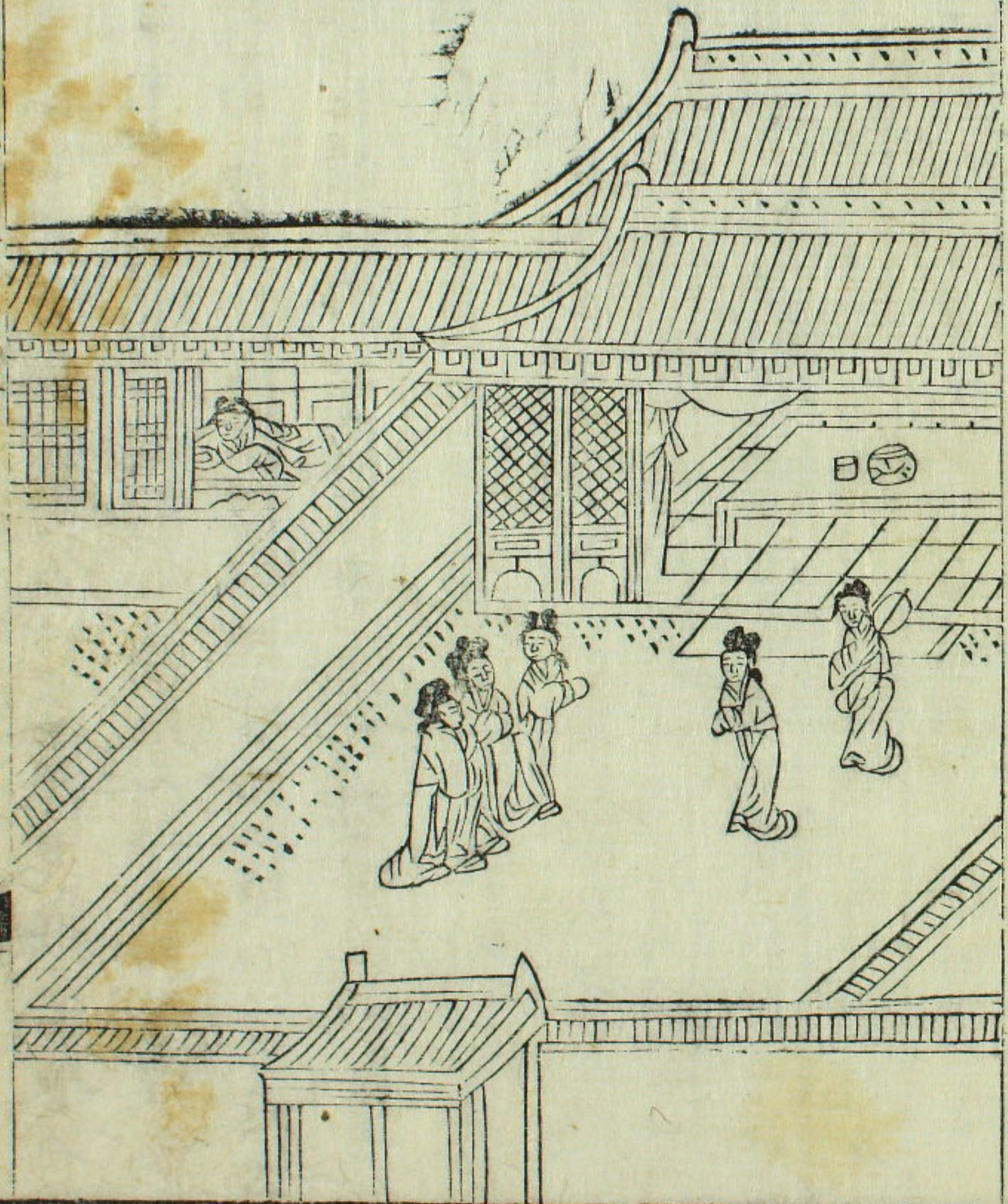


張易之母名阿臧嘗造七寶帳珍寶畢聚鋪象牙床織犀
 角簞輝貂之裘蛩蠶之氈龍鬚鳳翮為席每召其故貧時
 鄰媪宴飲為樂媪家所奉神像示以夢曰易之母子奢縱
 已極不久當受顯戮汝勿與禍也鄰媪懼而逃去易之作
 亂伏誅阿臧沒為官婢

當무즉천석의력신장역지이외고만방자하고그어미일
 흠은아장이니또흔스치범남흥여일즉천보장막을지으
 니취옥황금과진주보피를모하거묘히속미고상아로명
 상을만들며석각으로솟소리들듯고비취석봉슈석이아
 니갓촌거시업는저라미양벉적가난할데스관나으노
 과로더부러잔치하며즐기느니라그노피집의의흔바신
 령이있더니그신령이노과의게현몽하여왈역지의모지

夫치방자 흉이 심함으로 오리지 아나 주륙의 화를 바스을
 지니 네일 죽기 곧 치아니 흠면 그화의 참예할 가 두리 노라
 거닐 노피 크게 두려 먼니 도망흐엿더니 그후의 역지 와 연난
 을 짓다가 버히믈 밧고 야장은 적몰을 여관비되 나라

王莽妻



婦人惡報

二二

王莽輔政時母病公卿列侯遣夫人問疾莽妻迎之夜不
曳地布弊膝見見者以為僮使問知為夫人皆驚其詐偽
如此後斬於漸臺百姓共提擊之或切食其舌

한나라척의왕망이위권이심중하여일체를기우리는
지라그어미일즉병들어미공경년후들이부인을보내
여문병을슬시왕망의체색의느려마즈니치미뜻히살을
니지아니하고보오시히여져무르다흔가리우지못하엿
거늘보느니다그짐비로알앗더니츠후알미이곳부인
이라적마가늘나지아니리어쓰니그간스하고요악함미모
다이크더라그후의왕망으로더부러침략의처버히물
빛을서빅칭이그죽임을쓰어처로치고호그허를씩호
러먹엇더라

楊太眞



忠貞傳

五

婦人惡報

三十一

楊太眞嗜鮮荔枝自嶺南至長安數千里馬上飛遞入馬
 多斃故詩曰一騎紅塵妃子笑無人知是荔枝來後以祿
 山之亂從上入蜀至馬嵬賜死

양귀비식성이스치하여성네지머기를표하하니녕남으로
 좃츠장안의니르기슈천여리라날이오리면맛과식이
 변하여상호는고로얼로의역마를체워마상의치기로된
 하여일지년의장안의득갈게하니인매과폐하여죽는지
 부지기슈러라고후죽산의난을만나상을좃츠혹으로
 가더니마와의니르러죽음을받으니라

趙士周妻



趙士周妻全氏死數日後憑語女使來喜曰我生平耗費
綺羅及洗頭濯足分外使水陰司罪我日加捶撻苦不可
言幸爲我達此意於士周速拜懺念經以救度我家人聞
之不勝感愴

도스쥬의 처 권시쥬언지쥬일후의 그 혼이 계집종이
희의게 부치여 말하여 왈 니 평생의 갑과 비단을 만히
허비하여 또 머리 감고 발 씻기의 물 버스를 과히 흠으로
명부의 처 죄를 더하여 날마다 갈 초하미 괴로움을 견디
지 못하니 니 이 뜻으로 스쥬의 계고하여 설니 경니려고 지
하 여 날은 채도 깨하라 하니 짐사름이 듣고 감차 흠을
니 괴지 못하여 하더라

蔡襄



宋蔡襄喜食鶉一夕夢褐衣老人告曰來日受害從公乞
命襄問是誰卽誦詩云食君數粒粟充君羹中肉一羹斷
數命下箸猶未足口腹須臾間禍福相倚伏願君戒勿殺
死生如轉轂覺而異之詢廚中有黃鶉數拾遂放之經夕
復夢老人曰從公得生謹爲公禱上帝注公高爵矣襄遂
舉進士擢知諫院歷端明殿贈吏部侍郎謚忠惠

송나라 처의 채양이라 하는 사람이 외 초리 먹기 르도 하
하니 일일은 꿈의 한 번 옷 너는 노인이 너와 너의 명 일
은 희를 빛을 지니 이 러므로 공의 계 목숨을 비노라 하거
늘 공이 문왈 아 지 못하느니 그 뒤 성명이 무어 시며 날
을 향하여 명은 비문 벗지 노그 노인이 즉시 글을 의와
니르니 곧 와 시 되

그리 곡식 두어 닢을 먹으려 하다가 그 뒤의 국의 고기
되었도 다 하느니 그릇 국의 여러 명을 그릇 시 되 하려 하
미오 히려 부 초가 하도 다 구복 지 제는 잠간 동아 즐기기 미
여 늘 화복이 서로 열키이 엿도 다 원컨디 그 뒤는 경
계 하 여 살 생을 말 지 어 다 스 성이 슈 레 박 회 구 으 드
하 여 보 복이 이 이 느니 라 하 엿 더 라

공이 이르러 보고 꿈을 써 여 심히 괴이 하 여 반찬 하느니 비
즈려 무르니 누른 외 초리 슈 시 베풀어는 지라 드 여 풀어 노 하
더니 이 밤 꿈의 노그 노인이 이르러 왈 이 제 공의 살 오 뜰 어 더
시니 숨가 공을 위 하 여 상 제의 비늘 어 공의 벼 슬이 높고 권 하 게
하리 라 하 더니 그 후 공이 즉시 진스 급 제 하 여 단 명 천 후
스와 니 부 시 라 으 로 시 호 르 를 창 제 몽 이 라 하 엿 더 라

楊寶



楊寶弘農人年九歲至華陰山北見一黃雀為巢鳥搏擊
 墮地困於螻蟻卽懷歸置梁上又為蟲蛇所嚙乃移置巾
 箱中採黃花飼之毛羽成後朝去暮來經年之後忽與羣
 雀俱來哀鳴繞寶數日乃去是夕忽見一童子再拜曰我
 是西王母使也往蓬萊過此為鷓鴣所搏君仁愛拯救數
 承恩養今當受使南海不得朝夕奉侍流涕辭別以白玉
 環四枚與寶曰君子孫潔白位登三公當如此環矣寶後
 四世俱為三公果應白環之數
 한나라 양보는 흉농 사람이라 나히 구외의 화음산 부현의
 니르러더니 흉농이 시골의게 차여 쓰히려려 능히 날지
 못하 고기 암이 엉리여 못근 흉지라 뵈 불상이 너여 품고
 도라외 드근보우희언적더니 또 구령비암과 모진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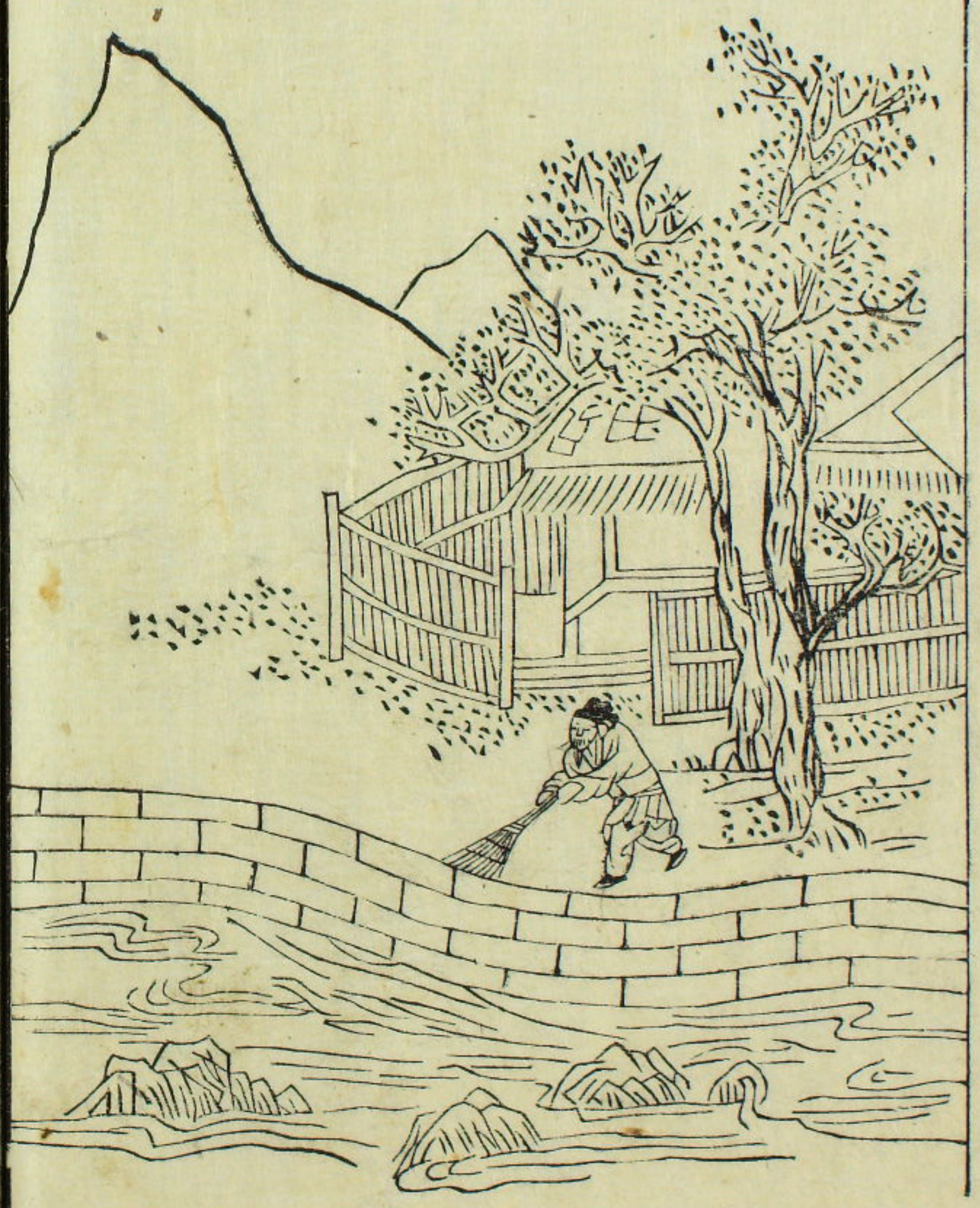
이 쇠물고 너를 기르 마지 아니하거늘 의옴겨 상소속의 두고 누른
 씻을 먹이더니 기과혈이 나일 위 능히 나는 지라 날마다 이 춤의
 나르가 처녀이면 도라오니 이러듯 기를 슈년이라 일은은은
 연무슈흔 시르드 리고 혼가지로 나르러 원집을 담허 나르드
 며 슬피 울고 슈일을 가지 아니하더니 이날 밤꿈의 혼연 혼동지
 나르러 저 비늘여 왈 나는 처왕 모의 부린 스적라 봉너 산으로 가노
 라 이 곳은 지너더니 흥흔 술의 제차 여거의 죽게 되여 거늘 그
 뒤의 어질므로 저 두어 기름을 나비어더니 이제 또 남히로 스신가
 락드 시조척의 밧들어 되시지 못하올 지나 슬프물 먹음어 하직
 을고 흥이다 하며 드드 여 비우물 희 배 나스런 주어와 르 뒤의
 조손이 정결하여 벼슬이 삼공의 올나 이 옥환과 조흔리라 하더
 니 그후 보의 조손이 스웨삼공이 되여 라 연고 옥환의 숙리로 흥나라

沈文寶



太湖之間村民惟事屠罟獨沈文寶家闔門好善用銀買
 放所獲禽魚衆笑其迂沈獨樂為後值疫疾人有夢見瘟
 鬼執旗一束自相語曰除沈家放生修善外餘排門並可
 插旗未幾一村三百餘家染疫死者過半獨沈全家獲免
 疔疔가의거는은촌빙그성들이모라증성으히기와그물
 질하며산양하기로성의하되오직심문보란사람이홀
 노착은닐하기를도하하여은과존을가져사람의잡
 은고기와증성을스쳐낫키를만히하니모른사람이쳐
 마라그오환함은우스며조롱하되문뵈홀노즐거하고
 조금로게어르지아니하더라그후의녀역이되치홀씩그
 촌중의홀사람이잇쳐몸의보니모든은여가맛은귀신
 이조고마흔괴혀홀문무금은가지고난화주며쳐로니
 너와일심가의집은죽은거술살니고착홀닐은도하
 홀은사람이니가히용쳐홀거시오그외에는낮치쳐레
 로괴를쇼자벼은리라하더니오리지아니하여이른촌
 의삼빙여개벼이천며모하여죽은적반이남앗시되
 홀노심가일문이온천이면하니라

韓永春



長洲韓太史世能世居陸墓甚貧祖永春每早起持帚掃
 兩岸螺螄緣岸而上者以入中流脫漁人之取有時枵腹
 及數里丁卯年太史赴鄉試夢神告曰汝祖父功德大矣
 當令汝入翰林官至一品後仕至侍郎奉使朝鮮賜一品
 服

장유는 희한 티스 채릉의 조부 영춘이 미양일즉 이러나 백
 린가 지고 두 편 언덕의 올라 오느 조키와 우렁이를 뿌리물
 속의 너허사름의 게 잡히지 아니 케 할 식이다 감비 굶품
 을니고 슈삼나 나 별허 조곰도 허티치 아니 러라 정묘년
 의티식 향시의 나 아갈 식움의 신인 이 날 너 왈 너의 조부
 공덕이 크리네 맛당이 급제하고 일품의 거 할라 하 너 나 후
 의 벼슬 할 여 과 연 일 품의 나 러 러스 러라

李冲元



李冲元將破一魚先夢一阜衣嫗者曰妾腹中有五千子
 妾生五千子亦生妾死五千子亦死敢望哀憐特貸一命
 元遂放之立意戒殺後於水際得珠遂致大富

넛적의니충원이라하느사름이큰고기하나흔어어장초
 죽이러흔시그밤꿈의흔검은옷니는노피비러와첼의
 빛속의오첼스식이드르느니첼이살면오첼스식이살
 거시오첼이죽으면오첼스식이죽을지라감히보라건
 디이지년지흔여일명을용치하라하거느충원이하여
 그고기의날인첼알고드여노하보디고드시뜻을세워
 살시음을정제흔여스더니그후의우연이물가의갓다
 가보비의구스갈을어어저빅되여스더리

蕭寺丞



蕭寺丞震少夢神人告以壽止十八至十七歲父帥蜀不欲從詰之以夢告父以茫昧強之至蜀蜀以主帥屢任大宴震偶至庖見繫牛者叩其所以庖曰酒三行例進玉筋羹法取牛特烙鐵鑽乳而出之乳凝筋上以為饌丞走白父索食牌判免此味震又白乞增永字于上已而夢神告曰汝有陰德不但免夭可望期頤享年九十餘卒

소시승의 일흠은 전이니 어려실적의 꿈의 신이니 이르되 네나히 심판세의 맛츠리라 후더니 심찰세의 나르미기 비마춤의 천권도스 큰 후여 축으로 가느라 전이 후라가물원치아나 후거늘 연고르물무른 뒤 전이 후말노배 고후니 기비니로되 몽스의 망미 흠은 맛으로 비어남라 후여 축으로 드리고 갖더니 이세 축중의 신판을 맛노라

잔치를 차린 식진이 우연이 푸쥬의 나라 큰 암소를
 밧섯시물보고 빨바를 무르니 푸쥬한이 고흥여왕이
 는 옥저킹의 쓰는 거시오니 축중 잔치는 법의 술체
 술비지는 면옥저킹을 드리는 법이라 그법이 스기 번소르
 세우고 쇠뿔치를 불의 달화 쪼슬쪼루면 쪼이 그쇠의
 못어영과 거든 일노국을 쓰리는 고흥여왕을 옥저킹
 이라 호는 이다 호는 거늘진이 듯고 참호히 먹여 기부의
 고흥여왕을 식도록 의이 조건을 어이고 쪼칭호여 영이
 이음식법을 업시 호여 드시 아니 케호니 일노조처
 온 비무슈한지라 이 날 왕의 쪼신령이 고흥여왕내음
 이 시니 요수를 면호 뿐이 아니라 맛당이 장슈호리
 더니 그 후 과연 구심여체를 누리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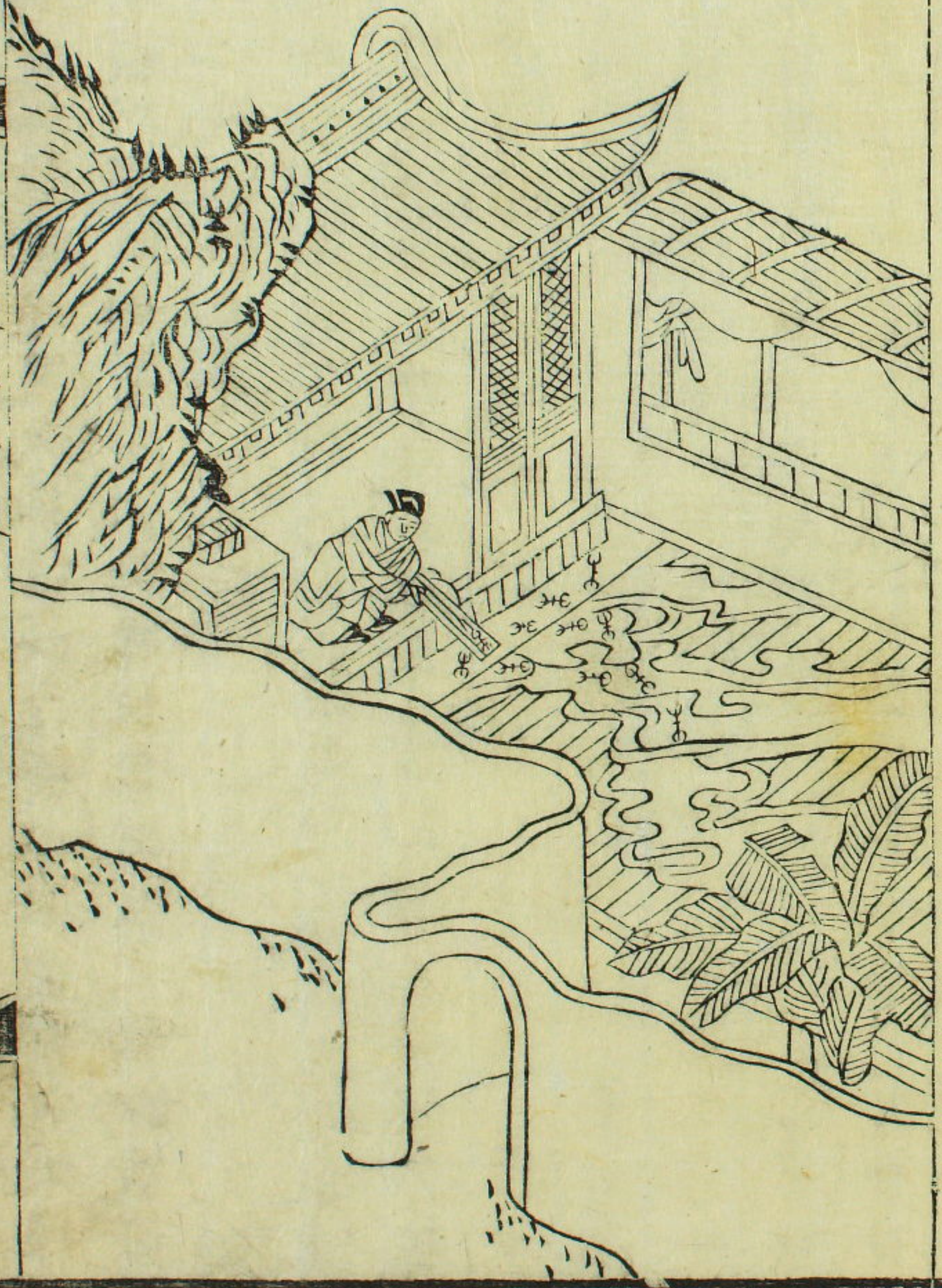
危素



危素未仕時館會稽張氏張欲伐杏樹以廣家塾有人夜
 夢叩公寢曰吾杏神也主人將伐願參政生之公即造張
 力解而止他日致白金壺為謝

참지령스위소는소의궁곤하여회계장시의집의
 흥장하였더니주인장시큰살구남글버려집터를널
 니려하는지라이날밤의위공이흥꿈을었으니흥사름
 이의의공의주리를두드리며급히버러왈나는살구나
 무신령이러나이제주인이날을버히려하는지라원컨
 뒤참령은날을슬오라하여거늘공이쳐여즉시장시의
 게나아가힘버말뉴하여그치니그후의그신인이백금병
 을주어샤레하고공이버슬하여참령의니르니라

宋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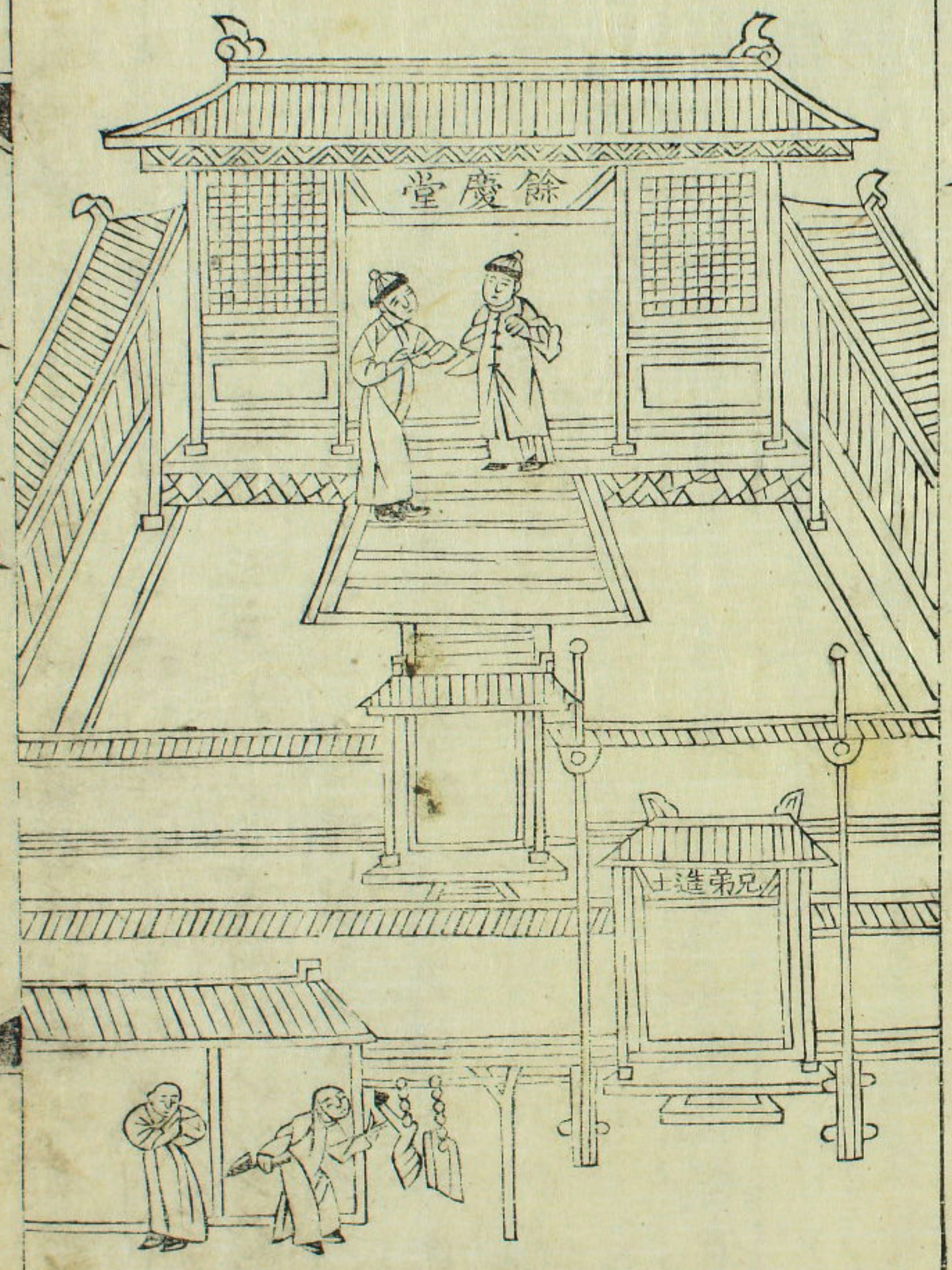


宋郊宋祁二人同業太學有胡僧相之曰小宋當大魁天下大宋亦不失科甲後十餘年春試畢復遇之僧見大宋舉手曰公羊神頓異似曾活數百萬命者郊笑曰貧儒何力及此僧曰不然肖翹之物皆命也郊俛思良久曰旬日前堂下有蟻穴為暴雨所侵羣蟻繚繞穴傍吾戲編竹橋渡之得非此乎僧曰是也小宋今歲固當首捷然公終不出其下及唱第祁果首選時章獻太后當朝謂弟不可先兄郊改第一祁改第十

송나라척의송교송기형테두사름이흔가지로되헉의공부할시흔도노뵈은중이이척이인을관상하여왈려근송공은맛랑이장원급제할거시오큰송공도또흔등과하리라하더니그후의과시를랑하여형테두의음시하고맛척출방치아니하여척맛초아드시그중은만나니그중이송교를보고놀나손을들어하레하여왈공의신척이즈못기이하니하마슈빅만모구숨을슬은가시베라하거늘송괴우어왈가난흔척비무스힘으로이의미처리요그중왈이느그러치아니하여라만죄근버리지라도또흔목숨이라긋하여부흔후흔를비리요하니송괴침스낭구의왈니십이척의집안래희계척아리리아미집이이척급흔비의벗기여척나가물보고니실어바시되척을덕거르리르노하건데엇더니아니이르니르미냐그중이르오되이긋그날이로다송괴금년의맛랑이장원급제하려니와공도맛침비그아리되지아니라하거늘모든사름이니르

되송귀이미장원훈진되고아리되지아니문어인말
 인고후여평히의후후더니미츄갈방훈시송귀과
 연장원으로선이고송귀또훈츄방훈지라이척장
 현척희니조훈신시니르샤되아이형의우희거
 치못후리라후샤그형교르르고취제일을삼고귀는
 제심을삼으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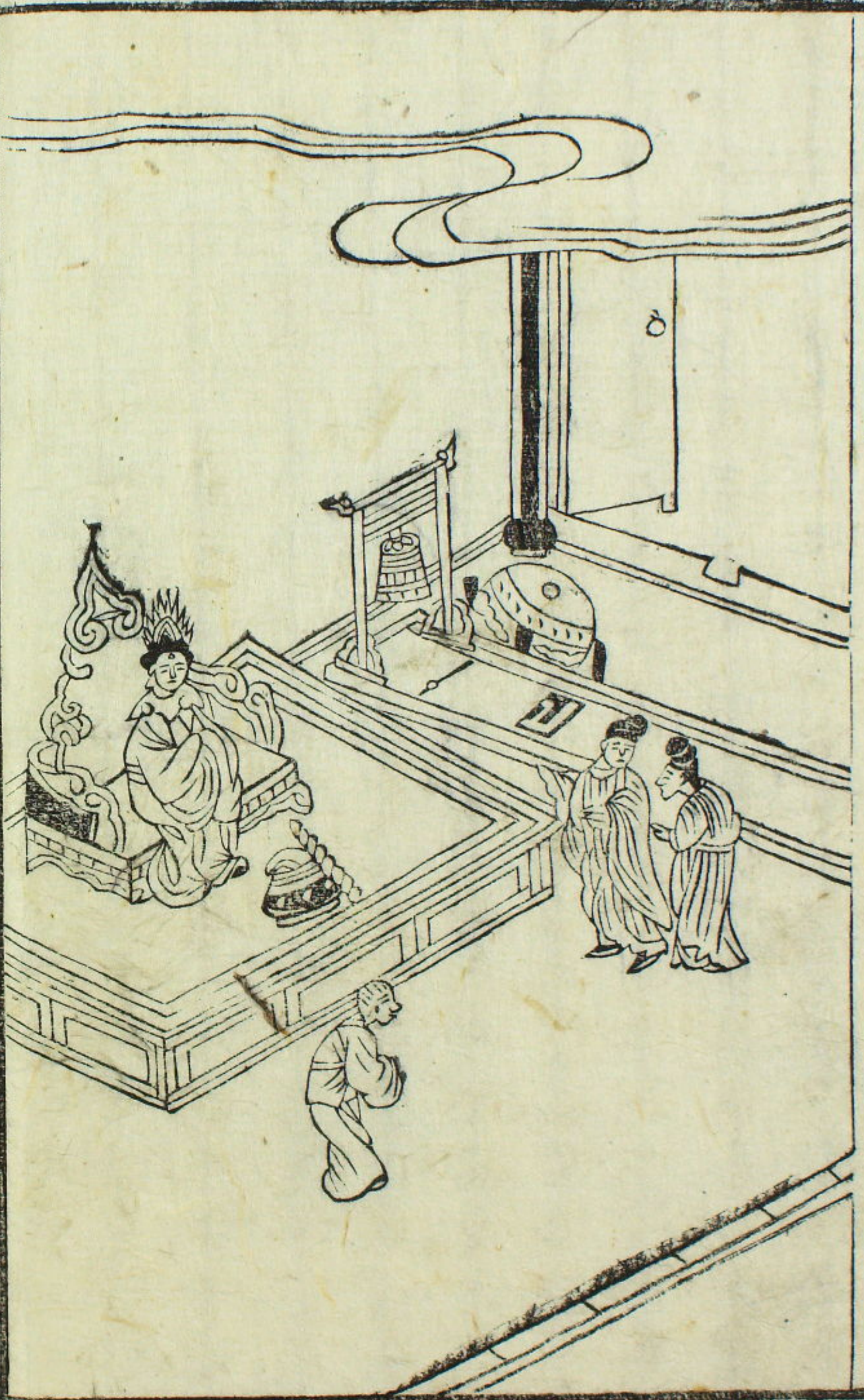
張自有



西安府太守高鉞字中含於十五歲為諸生時家下幼童
 名六指兒者乃乳母子也得危證六七日不食醫家辭絕
 不下藥其父張自有來哭告時亦無策救忽想起改惡業
 或可挽回遂呼自有勸之曰爾只有一子爾今與劉張二
 屠合夥生理多殺生命唯有今晚即與二屠算明分帳止
 利陸續收本他債住我房所欠房貲亦不要限三日內離
 房或者爾子得生亦未可定開導再三勉強從之未三日
 不藥得汗苑而復生可見天之好生一改業而即轉禍為
 福矣六指兒現今五十三歲子又生子矣

석안부리슈고홍의즈는중함이나나히십오되엇실
 석의유모의아들이잇스니날홈은누지이라홍연의
 리홍은병을엇어누칠일이지는되먹지못하고의연
 이호손을뜻고가는지라그아비장주위를살닐도리
 를최홍되호구홍모척이업더니홍연성각홍되악
 어버이고치면후루스가히도로할가홍여이의닐너와네이
 제누가와장가두빅침으로더부러동스홍여산목숨을
 살히하니이논곳홍향악사라즈식기르르비라지못
 홍는가하니네즈금의두빅침으로더부러침을난화
 시동스홍지말면후루즈네아들을살닐가홍노라홍여
 삼기유홍되즈웨그말을히너여극도로히홍여더나삼
 일이못홍여약도아나브되스스로짐의나고죽어드가스라
 나가히고득홍다사름이홍번몹빨어버은곳치미즈시도
 허복을밧앗시나일노베하늘의호성지덕이만호시물알
 니려라죽지이이제오십삼세되고호아들을나호터라

天妃宮僧



太倉劉家河天妃宮永樂初建以僧奉香火一日僧自外
 歸見鍋中煮二卵將熟矣問從何來行童曰于鶴巢中取
 之僧命還之巢中童曰卵已熟還之無生理僧曰我豈望
 其生但免母鶴悲鳴耳後數日忽出二雛僧異焉令童揆
 巢果卵生也一木尺許五色錯紋香風馥郁持下與僧為
 佛前供後倭人入貢舟因風泊劉家河入寺拈香見木問
 價僧謬曰此香三保太監捨供佛廟豈敢賣錢若能造蓋
 後殿觀音閣者當以與之倭曰吾難久待願酬以價因與
 白金五百兩後數年後復入貢訪前僧死矣畱金作供僧
 徒問香何以為寶曰仙香也焚之死魂還體聚窟洲所出
 還魂香是也

리창가하란물가의년비궁이이스니그중의노승이이

외일로는 밝거나 가다가 또 오니 솟희 두 알을 살마거의
익어거늘 그알의 소중함을 물으니 동지 된 왕과 황석집
을 띄워 보리라 하니 그중이 명히 의도로 가쳐라 제집의
너흐라 하니 동지 왕이 알이 익어오니 도로 가쳐라 가너서
로 무손 성되잇스리잇가 하니 그중이 큰이 되어 엿지그성
하기를 바라리오 마는 다만 황석어이의 슬피우는 거슬면
과치힘이라 하고 도로 그곳의 너히더니 슈일이 지니니
연 황석숫기들이 나오느니라 귀이히 너여 동쪽으로 하여
곰 황석지름을 띄워보니 과연 그알 노한 비라 또 그집속의
한 남기이시니 길히 한자 남죽히고 오석문 처어리며 향
니 귀이히 너가 지고 나려와 그중을 주니 인하여 불천
의 공양 하였더라 그후의 왜인이 조공하라 들을 석맛
춤가 하의 비를 띄워서 지라 그철의 드러가 네비 향니
그남을 보고 가슴 무르니 중이 되라 하여 왕이 느년 삼보
리 감이 시주하여 불천의 공양 향이니 엿지돈을 받고 팔
니 잇스리오 다만 능히 된 관음각을 지어 주는 적잇스
면 일노 베풀리라 하니 왜인이 이르되 너오리 잇쳐 집 짓기를
기르리 기어려우니 원컨대 가슴 취감흐리라 하고 인하여
금오백냥을 주고 갔더니 그후 슈년의 왜인이 드시조공하
르러와 그철의 이르러 그중을 츠즈니 이의 죽어느니라 인
하여 금을 만히 주어 그중의 계공양하니 모든 중이 물어왕
그향이 엿지하여 보리라 하니 노왜인이 이르되 이거슬
가 의지극한 보리라 하니 왕이 죽은 혼이 신체로도 오
느니 이니 취극한 죽어사느니라 환향이라 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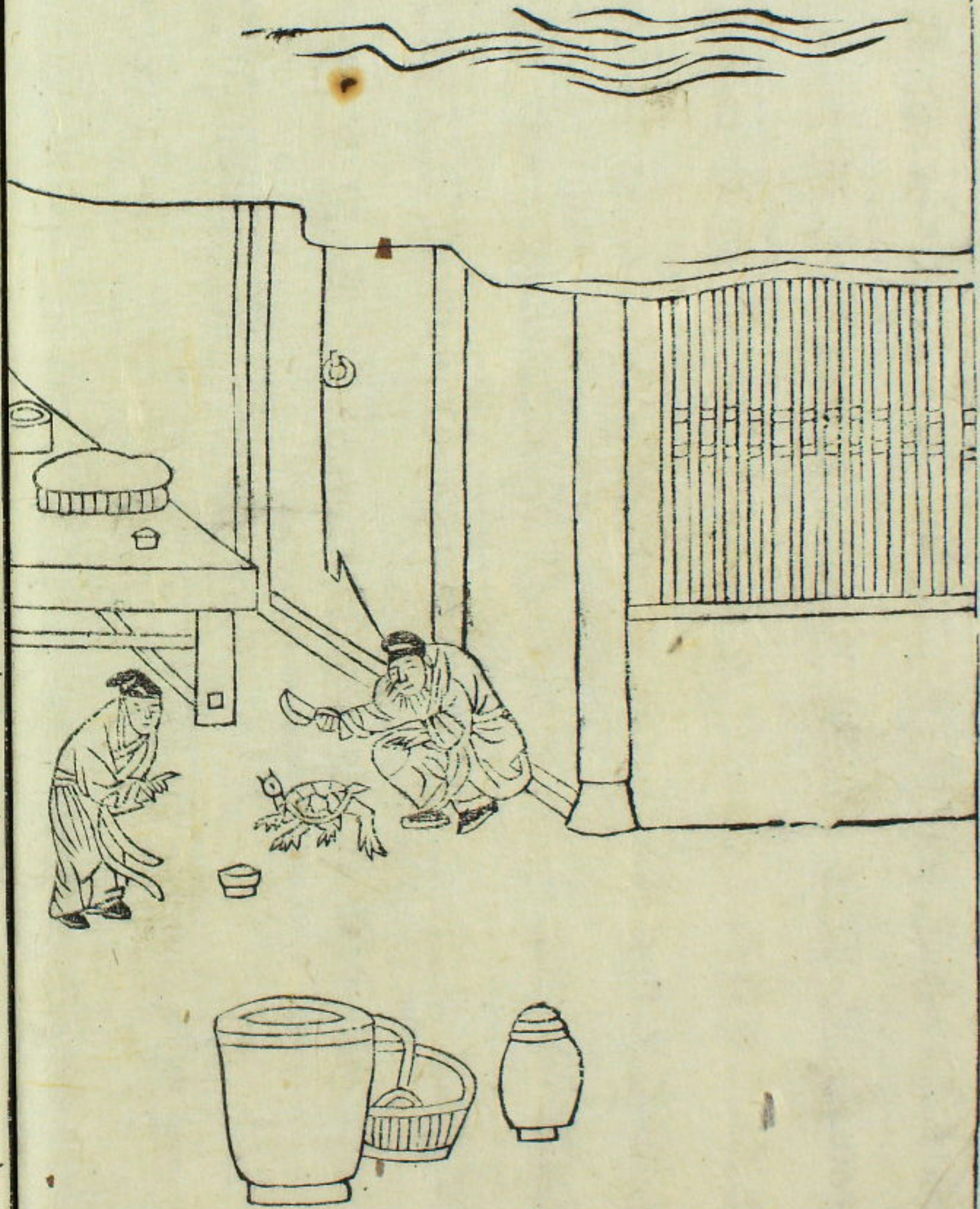
許憲之子



許憲爲餘杭縣令憲男於仇王廟側春放火大獵忽有三
白麀從屋後走出男引弓射復以火圍之風吹火反覆其
面焦頭爛額而斃憲繼以事免官

넷된이의허헌이라호는사름이일즉여항헌령이
되여스더니이척그아들리이구왕묘저희나아가남귀불
을지르고크게산양호를식홀연헌노로세히잇쳐주
왕묘지부뒤호로쫓츠나오거늘허헌의아들이활을
드러여쏘고초불을노하에우더니홀연바람이니러
불길은로르허며그얼고리의안치이니헌의아들이
초두난의호여불의다죽고헌이또헌이러니
여과직호니라

王屠



海寧百姓王屠與其子出行遇漁父持大龜買歸置之廚
 下將為羹有江西商人見之請以千錢贖焉且曰此九尾
 神物若買放有大功德驗之果九尾王竟烹之父子共啖
 是夕大水自海中來牀榻皆浮王屠父子為漂流不知去
 向人咸曰害神龜為水府所攝去也

히령은 왕도의 부지길히셔큰거복은스가지고도라
 와장 초살 무려흔시맛츄강외상외보고닐너왈
 이거복이아흠외리가진신물이니만일노하보너
 면공덕이시리라흔거늘스외히보너과연아흠
 외리라왕되맛츄외살마부지흔가지로먹엇더너이
 날밤의브다물이드러와왕도의부지흔외셔나가니사
 름이니르되신물을히흔미슈부의잡혀갓다흔더라

龍山軍人



五代龍山數軍人修築茶園見一白蛇大如拱競以鉏擊
 內姓余者勸阻之衆不聽竟斃蛇次日見白衣女子攜一
 籃下嶺衆奪其籃余姓亦不與籃中皆香菌光嫩玉色女
 子戰手曰清平時有盜垂涎而去衆歸烹菌將食余頭痛
 不可耐忽昏睡夢前女子云君意不害殊懷感激菌有毒
 可勿食也驚寤而衆食已畢皆嘔血而死

오직시의 농산사 허여러 군인이 동산을 쫓추는 시흔 흰 비
 암이잇스니 크기흔아름만흔지라 여러 군인이 연장을 드
 러즈도 아칠서그중의 여가성 가진 군이 서흔 노전하 여
 말니 되듯지 아니하 고 구하 여서 러 죽 여터니 그이흔 날흔
 소보구흔계집이 비고 니르니 글고 리로 노려 오거 놀여러 군
 인이 그비고 니르니 아스니 그녀저 겁하 여 셜며 니르리 청평

舍 지 의 이 린 도 적 이 잇 도 라 호 고 을 며 가 거 는 여 리 도 말
 니 되 여 러 군 서 맛 참 닉 듯 지 아 니 호 고 그 보 고 니 를 여 러 보
 니 그 속 의 향 기 로 온 버 섯 시 가 르 호 여 빗 치 고 은 옥 그 호 지
 라 여 러 사 름 이 가 지 고 도 라 와 살 마 먹 을 서 여 리 맛 참 두
 호 으 로 먹 지 못 호 여 호 이 업 디 엇 터 니 속 의 그 녀 지 나 아
 와 니 르 되 귀 호 노 히 호 들 주 지 아 니 호 엇 시 니 즈 못 감
 격 호 지 라 이 버 섯 시 독 이 이 스 니 가 히 먹 지 못 호 리 라 호 거
 들 놀 나 쟈 여 보 니 모 든 사 름 이 받 섯 먹 엇 터 라 이 으 호 여
 피 르 는 토 호 고 다 죽 으 니 라

王遵

戒應篇

五

戒殺惡報

五十一



王遵忿鵲喧噪俟夜深棲定以竹竿戳爆竹驚之後遵亦
得驚悸疾而死

왕준이 라는 사람은 사람의 짐 압히 나무우희기 드리는 갖치
있더니 그어스려이 지 쪼괴물분히 녀여 밤이 깊고 갖치
들기 르러 기드려 지 총을 가져 쪼막 쪼의 췌여 갖치 쪼의
드히고 볼을 노하 놀너 엿더니 그후의 왕준이 또 하 놀
난 병을 어서어 죽으니라

楊舜臣



虔州司馬楊舜臣謂屬官劉知元曰買肉必須含胎肥脆
可食餘瘦不堪也知元乃揀取懷孕牛犢及猪羊驢等殺
之其胎仍動良久乃絕未幾舜臣有一家人死心煖七日
而甦云見一水犢白額羊其子隨之見閻王訴曰懷胎五
個月枉殺母子須臾又見猪羊驢等皆領子來訴見劉司
士供狀牽引我家司馬俱有處分後三日而知元果死又
五日而舜臣亦死

견주역히스마벼슬한양순신이그소속관원가지원드
려닐녀알고기름먹으미식기빈거시라야살쳐가히먹
엄죽고기여는여위여도치아나다하니지원이의의
숫기빈우마제양을갈희여죽이니그빛속의티오히
러움죽이다가이우하여긋치더라오리지아나하여순
신의집사름의죽은제이러니칠일만의회심하여니로
다음부의드러가니흔물소와이마흰양이숫기하노식
드리고와엄왕게하소언하여니르티를푸른지드섯
들만의모지원통이죽엇노라하더니이우하여무슈하
우마제양이다숫기름저는리고와하소언하여유지원이
초스를올녀쳐죄하고또우리상공은부러잡히게하여
함의최분하리라하더니다하더니그후삼일만의과여지
원이죽고오일후의양순신이또한죽으니라

吳桓



杭州吳小汀子名桓初好食牛連喪子女適一子患痘危甚吳夢進入官司有訴吳殺牛者爭辨良久主者命羣牛以鼻嗅吳周身至面頰吳惶懼牛竟無言吳自辨嘗食牛實不殺牛且永誓不食主者諭牛而遣之吳得釋出見一高閣閣上呼吳仰視忽擲下一物曰還却汝捧視之乃其子也驚汗浹背而寤子尋愈

항주에서 히오소정(吳小汀)의 아들이 잇사니 일름 흠이 환이라 일름 죽되 고기 먹기름 표하하더니 년하여 죽너를 굿고 또 아들이 하나 히잇되 역질(疫疾) 노증정(癘症) 이 심분(甚分) 의 증(증) 하더니 일름은 섬의 감히여흔 관(官) 스의 드러가니 여러 마리 쇠잇되 하스어한되 오환(吳桓)으로 인하여 죽다 하고 또 들마지아는 지라 관(官) 원(元) 이 여러 소를 명하여 코김(科金)으로 배오환(吳桓)의 몸을 맛

흐라흐나 못외코를들어오환을맛흐를시얼글과쌈의
 나르니오환이놀남고두려스스로변백흐여왈너일즉
 외고기를만히먹엇시나실노소를죽인비어바다흐며도
 밍외흐여즈시먹지아니렸노라흐니그관원이모든소
 를기유흐여보내고오환을노흐나오환이비로소죽
 기를면흐여나오라가머리를들어우러보나흐놈흔
 천각이잇고그우희석오환을부르며흐물건을느리
 처글오더네저슬도로주노라흐거늘빗사보니아곳그아
 들이라놀나등의짐을흐니고쳐여보니아들의병
 이쓰흐나흐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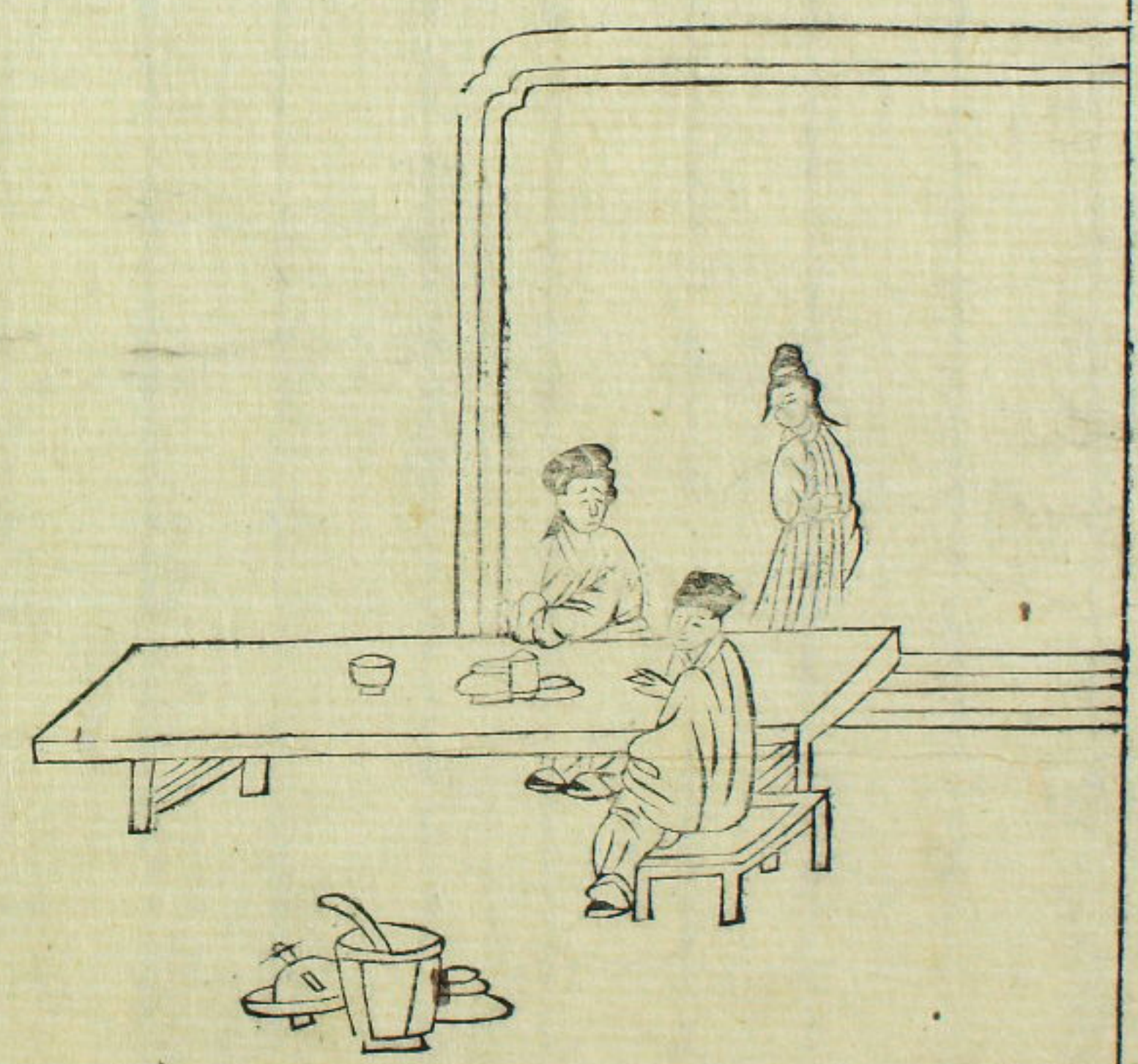
張易之



張易之爲控鶴監弟昌宗爲秘書監昌儀爲洛陽令易之
爲鐵籠置鵝鴨於內中起炭火銅盆貯五味汁鵝鴨遶火
走渴卽飲汁火炙痛卽迴表裏皆熟毛落血赤乃死昌宗
活欄驢於小室中起炭火置汁如前昌儀取鐵掘釘地縛
狗足於掘上放鷹鷄活按其肉肉盡狗未死號叫不已後
易之昌宗被百姓鬻其肉肥白如猪肪羊脂煎汁而食昌
儀被人打折雙足按取心肝

무추던 시의 장역 지는 공후 감이란 벼슬을 향고그아
우창종은 비석 감이 되고 뜻히 아우창의는 나양녕
이 되엿더라역 지일즉 칠농을 만들어그안희오리
와게우르너코구가온되숫불을 띄우구구리되야의온
갓약념의물을 담아노흐나오리와게우의무리불
가흐로도라단나다가덥고목말나그물을 먹으니 남이뜨겁
고창지다며안팎그로다너어깃과칠어질노떠러지고마시
심히아름다운지라상히일노뻘음식을 삼그창종은느귀
와말을 씹은지갑속의너코숫불을 띄우며약념물을 먹
여죽이물그형의법및치향고창의는외갈고리를뜨히박
고기를 잡아아네구입을 동혀미고스오나온미와슈리를노하
산치로그고기를 썰혀먹으니살이다진토록죽지아니하
여부르지즈물마지아니하더라그후역지와창종이복
죄항미빅성이고고기를 백흔어먹으니그살이회고살썩
맛도흐미듯과양의 기름진고기및고창의는사름의게마
자두발목이떠러지고비를씩여염통과간을 썰혀너
이나라

楊阿剩



婦人楊阿剩自幼貧病晚亦狼狽臨終自語曰我前身本
 一蠶人失於詳審有一婦人自稱病蠶不能辨其是孕遽
 以芫花酒下之婦人與腸中二子俱斃是我一舉殺三人
 陰官罪我罰受女身今已三世恆為賤隸長困飢渴多病
 少安可語世之蠶者以我為戒

넋적의 양아잉 이라 하느계집이 잇스니 어려서 부더가
 난고고 병이 만흐며 하도 록 낭 피하 여 천하 고 궁곤하
 더니 죽을척의 스로 말하 여 왈 너 권싱의 본되 의원
 하던 사람으로 병을 보미스네 허살 피지 못하 여 하부
 인이 스스로 나로 되 피 병이 로라 하 여 곳치물 구하 거늘
 너 흥히그 잉리 하느 줄을 모로 고 도 약을 먹여 스더니 그부
 인과 빗속의 든 두 아히 하 습의 죽은 지라 이느 너 하번

感德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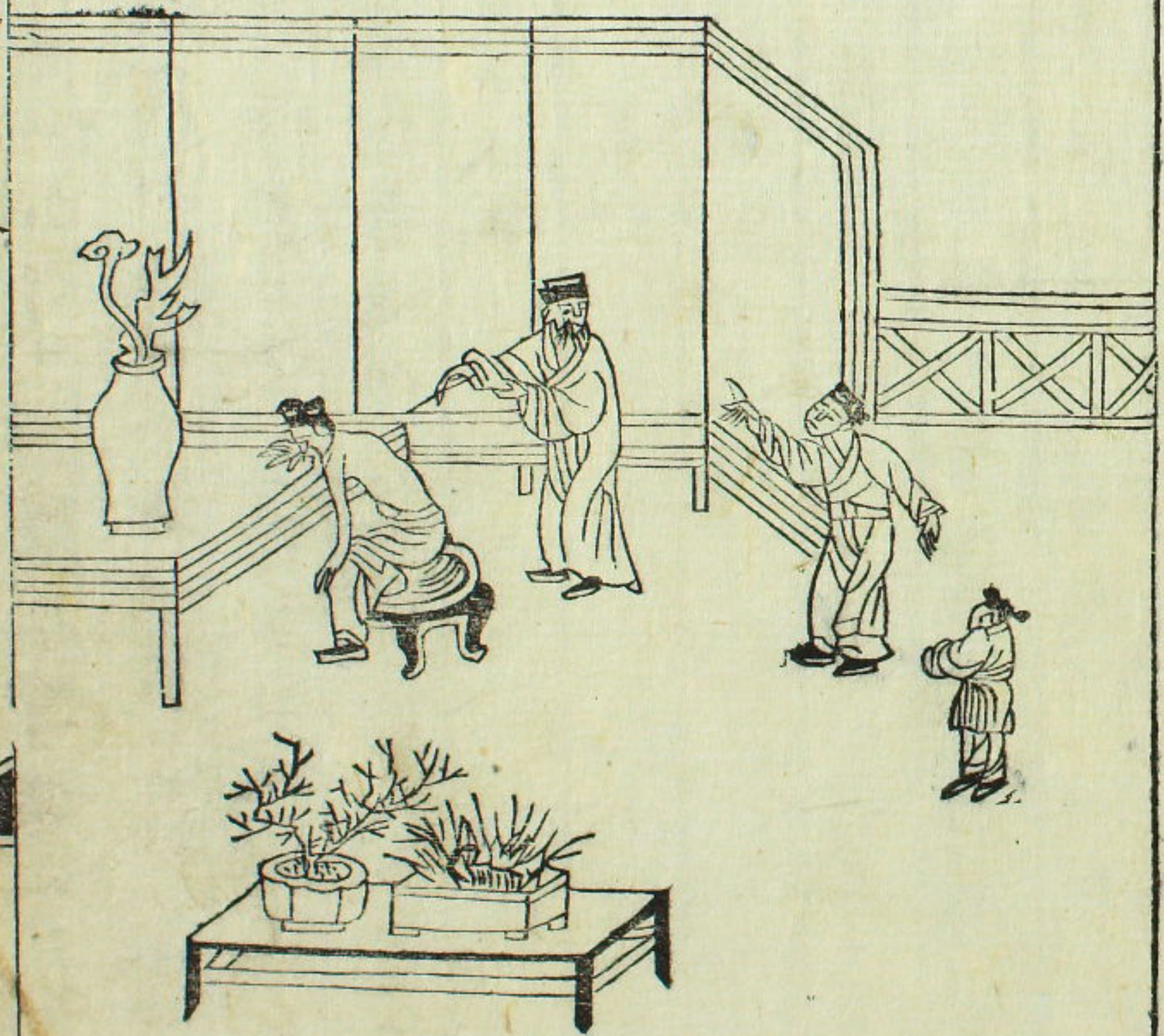
五

方術惡報

五十六

약의 쇠사람을 죽이미니 이러므로 명부의 쇠날을 벌
 하여 제지의 몸으로 리여서 이니 이제 이의 삼되 리지
 지라 가난하고 취히 되여 일을 상을 구곤하고 병이 만하
 평안함이 적은 지라 가히 베풀어 상의 원의게 말하여
 날노 베풀어 제하라 하더라

徐醫聖



感應篇

五

方術惡報

五十七

當塗縣有一外科姓徐者鑿富人江舜明背瘡索其謝已
許三百金矣攻旬日法當潰膿徐欲得謝復以藥紙撚插
入江呼痛苦徐曰當別以銀二十五兩贈我痛當立定江
之子大怒堅不肯與又復爭論乃許其半將紙撚已入一
夏矣及拔出血湧如泉遂死江子訴於官徐受刑將斃行
賄免焉未幾徐病叫苦不絕聲但云江舜明莫打我我固
不是令郎亦殊誤事如此數日乃死

당로현의호의원씨가이시니이리죽호부민강순명의
등창을르스릴식샤레호는네란을구호여이의삼빙그금
을허락호엇더라인호여십여일을보더니이척맛라
이과종호를지라르시네란을밧고적호여진시과종치
아니코약조희로시름을만르러창구의부비여너호니
병인이알푸물견리못호여크게브르지거늘의제르
오리별노이은즈이십남으로뻘날을쥬면알푸물쥬시
그치게호리라호니강가의아를이그소위르릉호한호여즈르
거쥬지아니러니그형세급호를보고호일어셔그반을
허락호니이의십지바른지발셔시경이넘은지라그셴
히기미척는피시암솟즈호고르여괴척호여죽으니그
아를이판가의경장호여셔가르잡아형벌을밧을식자
찾죽이러호더니셔개회라르브고거유면호니라오리치
아니호여셔개호연병들어알호를셔소리질너와강순명
아날을치지말나너진실노잘못호엇거니와네아들이호
호니를그르호미라호고이러호기르슈이를호라가
이의죽으니라

江充



漢江充爲趙王容得罪亾詣闕告趙太子陰事太子與武帝兄弟行也以充告故坐廢帝拜充直指使者從上甘泉逢皇太子家使乘車馬行馳道中充以屬吏太子使人謝充令勿以聞充不聽竟自白奏會巫蠱事起上令充治獄充曰於太子宫中得木人尤多又有帛書所言不道當奏聞太子惶迫收捕充斬之上未赦太子罪太子自殺上遂族充

한나라척의강충이라함은조는조왕의척이되여서너죄를짓고도망하여경스의나아와표척의가만함닐은고하니표척의인노인하여폐하고무제충은비하여적지스스름하여너니상을되쇠감척으로갈시황척의집스저거마를모라어로의라니거늘충이가바아우의가두니리

지사름으로 하여금 충의 계사레하고 또 쥬문치말기름
 칭호되 충이듯지아니 하고 맛춤니 알외엿더라이역의
 무고의 옥서니라니 충으로 하여금 즉스리시충이
 니르되력스궁중의 목인은엇으미더옥만코또비단
 의글쁜거시잇스되모라부도지언이라 맛랑이알외
 리라 호거늘리저황박하여 충을잡아버혔더니
 상이척의죄를샤치아니시미척저스스로죽은지
 라 상이의 충의 죄를알으시고 충의삼족을멸
 하시니라

孫公綽



主簿孫公綽到任暴死一日見夢于縣令曰某有冤求長
官伸雪某命未合盡爲奴婢所厭倘密選健卒往擒必不
漏網宅堂簷從東第七瓦墮下有某形狀可搜之而正其
罪也言訖不見縣令次日持票往捉盡捕諸奴于堂簷搜
之果獲人形長尺餘釘滿其身木漸爲肉擊之啞然有聲
縣遂申府奴婢數人皆處極刑

외방고을의 주부 벼슬은 손공작이 도임한 연지오리
지아니하여 폭주질노 주엇더니 일일은 현령의게 현몽
하여왈 내가 제지인은 날이 이슬지라 원컨대 장관은
날을 의하여서 원호소치니 명이 죽을척아니여늘노
비등의 방저호물 남엇시니 이제가 마니 전장은 군스
를보이여노비를라 잡아도 망치못하게하고 집침하

동편 제일곱적기와 뜰의니 모양으로 만든 목인이 잇스
거시니 가히스허하여 그죄를 칭호소치하고 말을 맛츠며
간곳이 업는지라 초일의 현령이 발포하여 그놈을
낮치 잡아아노코침하를되 지니 과연 사람의 형상만
거시잇스되 왼몸의 못이가득하고 남기변하여 거의유신
이 되여시니 조곰소리면 아연이아래포하는소리르니
라 현령이드러이여니가를상스의보하고 청범의노비
두어명을갈히여극형으로죽이니라

王萬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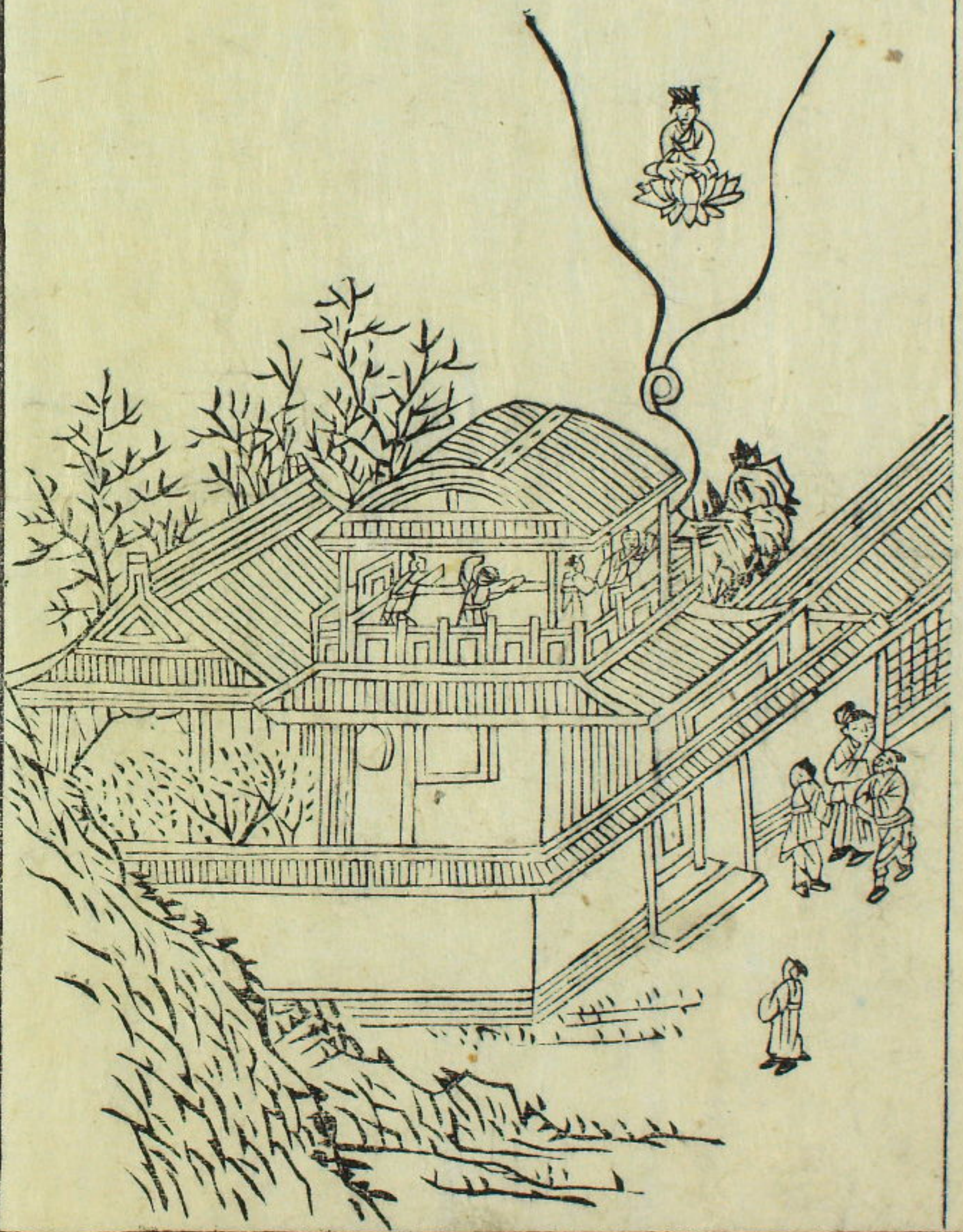


吉州術者王萬里善幻宣慰司奏差王弼嘗折辱之萬里
恚甚因以術厭弼弼夜坐見一女鬼至詰之乃曰妾乃萬
里所遣害公者公誠謹不忍侮公今欲乞公申我冤妾乃
豐州周和卿之女名月西母病召萬里占之乃記妾生命
行呪禁之術使我昏仆門外萬里負之野乃割我髮及五
官五臟之屬粉以爲丸呪之復束紙爲人形百端役使稍
違卽以針刺痛苦不可言弼乃聞之縣縣捕萬里訊之月
西與辯又言曾殺二人遂搜獲邪囊內果有二人爪髮乃
殺之三人拜謝而去

빛적의길쭈히와오만리라호는사름이환술호기르
요하호거늘외의스쭈쳐버슬호와외필이일즉만리르어
죄호며부지러스더니만리분호호니과지못호여환술

노와 필을 의하여 하더라 일일은 필이 밤의 안침스더니 후에
 집귀신이 이르러서 들소우리를 무른뒤 ~ 하여 왈 최반은
 이의 만리의 보친 비라 공을 허하려 하여 의와 스반더
 니 이제 공을 보니 쇠근흔 장이라 츄마 공을 허치 못하리
 지라 최반은 본디 동쪽 주화 좌의 절이니 일흠은 월
 쇠라 어미 병을 들미와 만리를 본디 기린하음을 짐함하여
 더니 이러므로 최반의 지반의 기와 하여 최반의 쇠과 면을 귀
 로우하여 좌 주흔는 소갈 번을 허하여 최반이 즉시 혼절하
 여 문밖과 업더치니 만리 최반을 얻고 유병하은 곳의 니로
 러 최반의 두발과 이목구비와 오장육부를 가초버혀가
 로를 만드려고 조희로 인형으로 만들며 전염을 범하니
 최반의 혼이 도망치 못하는지라 백간으로 부러다가 조곰
 이나 어귀미잇스면 드는로 지르고 보치니 알뚜고 괴로움
 을 전지리 비어는지라 망구흔 비화로 베풀공의 계고하
 니 원컨디 공은 최반을 의하여 신원하기를 바라노라하
 거니와 필이 ~ 말노 베풀공의 고하니 고을이 만리를 잡
 아 힐무니하고 월 쇠로 더부러지면 ~ 시 일의 또 말하
 되 일즉 두사람을 죽이라 하거니 명하여 그 몸이 된지니
 과연 죽머니 속의 두사람의 머리 떨어손발 툭이 잇
 는지라 의와 만리를 죽여 죄 범하니 그 죽은 삼인의
 의혼이 절한하여 사레하고 가더라

宋子賢



隋煬帝時唐縣宋子賢多幻術樓上放光變化佛形自稱
 彌勒出世又懸鏡空中有來謁者令照來生作蛇獸形教
 以禮拜乃現人形因聚數千人潛欲作亂官軍捕之遠居
 皆火坑人不敢進帥曰此地素無坑止妖氣耳及進討果
 無火遂擒斬之

슈양제씨의랑현고을송조현이라하는사람이환술
 을만히하여누우희석괴운을닐의혀고변하여부처
 의모양을하며스스로니르뒤미르보살이체상의나왔
 다하고또거울을공중의드리고혹츠오느지이시며
 그사리를시겨후싱닐을비쳐여보라하여혹비암과
 즘성의형용을니며되게하고네비르시긴후야인형은
 희목게하니이러므로자바나흔무리슈현인을모은

지라 장초인하 여작난코죄하거늘 관군이 잡아으려하
 디스 현이 려잇는 곳을 들너 구멍이 른 만 들고 부른을
 노흐니 관군이 감히나 아가지 못하느니라 그 장췌 군중
 의령을 여왕이 쓰히본디 불구덩이 업니 너이느요 술
 의귀운이라 호고드드여 나아가치나라 연불이 업느
 라모다 살오자 잡아죽이니라

廖德明



洪武初江右廖德明善堪輿自擇墓穴在江島青龍山尾
葬後當出天子臨終戒其子曰葬後三年勿啓宅門啓得
奇禍子依言扃其門不啓將及三年嫁妹母曰但爭五日
啓何妨遂啓之時欽天監奏帝星見江西分又望氣言江
西有天子氣因踪跡發其塚但見屍已化爲龍惟一足未
化目瞑未開蠕蠕有動意若滿五日則化而入江事成矣
遂斬之一家坐法

홍무년간의 강쇠석희사는 노더가 명이라 술이 신이 후더
니스스로 되를 갈히여 강도 청룡산 꼬리의 침복하니 이석은
맛강이 현저날 곳이라 남풍시의 구아 들드려 정계하 여왕나
의 시대를 그곳의 장수하고 삼년 지년의 묘문을 열지 말나 만
일묘문을 열면 의해나리라 하니 구아들이 그 말을 좃츠문
을 맛고여 지아니 기를 장츠삼년이라 일스은 구누의 들의
집보닐 석구어미니 로디이 케는 삼년 이거의 라하 여가 만오
일이 나앗스니 지금의 문을 열라 무슴히로 오미 잇스리오
후고드여 문을 열엇더니 이적의 맛츄름 현감이 알
외되 강쇠분야의 제성이 보고 또 망귀하는 지 말하되
강쇠의 현저기은 이이라 하거늘 이현여 종좌기로 발
마그 무덤을 파니 시체발서 번하여 공이 되여 시되오
직후 발이 열되 엿고 눈을 감아쳐 쓰지아니 하엿시나
연이 음죽이 는 동령이 잇스니 오일만 쳐오든 들아 조
화하여 강으로 드러가고 리스름 날은 너라 드드여 죽어
을 버히고 일문이 이법의 년 좌하니라

咸豐壬子京中新刊

感應篇讀法纂要

感應經是一冊天律不得泛作勸世文看讀者須於靜室端坐屏去浮氣存一片恭敬虛受心篇中警語力能練入若常如此檢閱一切邪習自然消滅

一宜篤信

考古來之得失察時事之興衰感應之理不爽毫髮特遲速不同兩人未詳審耳少年豪放者錮迷不信及乎涉歷既久悔悟漸生然身老而習成欲以遲暮之脩消生平之慝盃水車薪不能勝矣故凡見此篇者即須猛發信心一念信種一念善根念念信種念念善根小信小福大信大福如或疑信相參終成自暴自棄

二囑勤脩

此經爲求長生者設蓋出世法也而住世傳世棄世轉世皆不越此裴度延齡羅翬減算此住世法也禹稷繼世林機滅門此傳世法也金穀盈倉權勢炙手而一旦無常惟有孽隨功過不爽此棄世法也邾后爲蟒王稍變牛罪惡貫盈淪於異類此轉世法也欲脩還丹先積陰德積善無人知陰德也施與不求報陰德也不迫人于險陰德也陰德既優自能入悟既悟則可以長生出世矣人卽不爲出世計獨不爲生死計子孫計乎閱是篇者須勇猛精進常如鬼神森列指視昭然時時省察事事遵行庶幾不負此身耳不然或作或輟忽忽悠悠人壽幾何能待我徐徐積累哉亦終受陰陽磨弄而已

三貴堅永

小善報近大善報遠近報福輕遠報福重今世信善者非無人而堅永者不多得由其略行數事間值坎坷卽謬謂天道難知前脩頓廢皆欲速之心悞之也不觀夫周之未王乎以公劉太王之賢尚有流離播遷之苦以文王之聖猶不免羑里之囚今此時善根不固悍焉與強戎暴主爲難世未必三十年未必八百矣故積德而弱者福之基履險而貞者德之辨風霆摧折之下崛強猶昔氣力自是不同一發則蟠天際地攝受無窮久矣夫天之以是勘人也

四要真切

凡濟人當殷懇迫摯省心必篤實不欺一念之誠可動天地昔禹稷飢由已飢溺由已溺固明德浚遠享有天下而尼山布衣老安少懷立達由已亦帝祀萬世與南面者等

豈非此真切之心哉苟徒事沽名不脩實德則虛聲祈福自悞匪輕而愈淨意一傳又可爲明鑒也

五勸流通

善惡兩報勸戒昭然此上帝之神道冥府之確案也暫之者不必有其名不敢以善釣譽也市之者不必求其贏不敢以善漁利也此篇所在卽屬善緣秘而不流必有奇禍故能傳一人者當十善傳十人者當百善傳大貴人大豪傑大力量者當千善廣布無疆重刻不朽者當萬善時時稱說時時提醒使一切世人無不聞言感動變化更新善緣無邊福緣亦無邊矣昔周堯演說此經而立脫饑饉君平導人于善而平地昇仙公善之福豈有量哉

感應篇靈驗記

○錢塘汪原母老而已復三十無嗣父靜虛公有志刻感應篇未遂而卒原欲求母壽兼求子息乃賣田成刻方刻首卷妻卽有孕生子又多方募善士及玘等出貲印至萬部送人一夕夢其父謂曰爾能善承我志我已超升天堂爾母亦享高壽爾與助印諸人皆名登善籍矣後家道日裕母壽近百

○黃岩縣楊瓊家貧見鄉人刻感應篇欲助無力因勉強刻第十七號一板夢夢神語曰已如君所刻中式矣後果中第十七名

○瑞安王鳳嘗奉行感應篇又刻印施人一日病死被二卒攝去行至中途忽見二神現空中一黃衣者曰王鳳

嘗刻行感應篇當益其壽速放還陽二卒領命轉送之
歸時夜三鼓家人環泣鳳忽甦備述其事霍然而起享
高壽

○錢塘文學許廷俞虔奉感應篇精書一冊供於密室朝
夕拜誦遵以行事一夕大盜劫其家至門迷惑莫知所
向畏懼而遁許後訪知其事益發心募刻流通屢著靈
異家亦興旺

○徽州吳大奇之嗣祈禱不應有客授以感應篇曰此求
子之寶筏也吳拜而受之持誦遵行後連生三子因梓
行而自紀其事

○遂寧周箠熟習感應篇註案好與人講說一日暴死經
日復甦謂其妻曰我被一卒追至陰司環顧左右半是

鄉里餓死者心甚懼忽座上王者呼曰汝本在饑饉籍
中因欽奉感應篇又好與人講說聞而改過者多皆汝
之功也今數盡一槩追至改註爾祿壽籍放爾還陽若
能堅心向善可證大道後不復來此矣既出復遇一吏
戎曰汝還陽間空刻感應篇勸世一方受持則一方免
難天下受持則天下豐治傳授之人功德不小一切水
火盜賊刀兵瘟疫俱不為害汝其勉之周還陽奉行家
道日裕常述此以勸人改註祿壽籍家道日裕

○陳碧松居武林北郊素奉行感應篇並刻以勸世遇大
雨連月陳一夕他出止宿妻兒夜坐候之忽聞敲門甚
急時大盜連劫里中夫人謂盜至亟呼家人避之將出
戶而高牆忽倒正厭寢室床帳器具皆成粉碎向使公

不他出夫人必不久候一家豈能免哉天佑善人巧於示異如此

○簡州進士王吳久染重病開禧丁卯年仲冬死至陰司見一衙門甚是壯麗金字大書其上曰東嶽府殿左有一大碑高至丈餘其上大書金字乃太上感應篇也王吳就讀一遍歡喜恭敬即聞神人謂曰王吳一見太上感應篇便生如是欽慕若能從此奉行兼持戒殺自然病退身安不必在此王吳遂得復生重病頓愈

○峩眉縣令王湘於紹興辛巳年發心力行此篇數十事偶因悶絕男女環泣湘覺身在半空聞有神人說王湘方欲行太上感應篇宜速放還後壽一百二歲

○楊守業河間人每日持誦是經六十無子深以為憂一日病死忽生謂家人曰適到陰司見一官持簿點名言我今生無子只因恆誦感應篇當增祿壽賜汝一子明年果生一子養老送終

○浙江李燧升於順治辛卯計偕過吳門夢漢壽亭侯詔以廣刻是篇勸迪來學可以釋罪消冤及第歸竟忘持奉丁酉謁選得漳州司李還過其地復夢神督責之驚悔而寤及明而緹騎已至獄底沉淪終宵怨艾武林嚴沈述

○雲遊道人姓張天彭人也以酒業破產出家脩道投師口傳太上感應篇化緣以充旦暮行至雅安地方有一茶肆日供齋饌令其誦道人雖至誠看念未及究其全篇一夕被攝鬼吏押至官府見兩傍受罪之人無數

行至堂下又見旗幟羅列刀劍滿前堂上之官大聲問曰汝在生誦太上感應篇何故止及其半空還人間受百日辛苦更遂引出謂曰汝以誦經不完所以至此今既復生可普勸世人究及全篇不惟免罪抑且增功道人既醒遂以此事通告一方人果敬信其地屢有豐年道人亦病愈身輕得道而去

○西蜀李昌齡為光州太守平反冤獄甚著聲績詳註太上感應篇使人因事求理助宣教化此篇大旨遂得燦然昭明於世齡後獲福甚多以壽考終焉今之李傳即其註也

○越國鄭清之侍宋理宗於潛邸語及此篇亟索觀覽登極以後注意表章賜禁中錢帛百萬命工刊梓又親書

諸惡莫作眾善奉行二語冠於篇首而奉行者日益眾矣清之嘗許作贊久而未成後因目瞽乃感高邁長明鐙頌事遂力疾作贊目即愈後參大政同知樞密院事

○台州僊居縣城西王竺有次男王淨年四歲嘉定乙亥六月十二日午時生戊寅二月二十三日竺帶男王淨同出嬉遊被邪崇侵害回家不能語言至一十六日戌時身死竺哀痛情切發心命工重刻太上感應篇印施欲求亡男王淨魂魄再投母胎妻黃四九娘於己卯春有姪三月二十八日夜夢到黃巖縣定光觀黃籙普渡大齋會薦男王淨其時恍惚恰似與亡男共轎回家及至夢覺胎腹微動至十月十八日申時復生一男捨在東嶽行宮取名師回

○慈谿秦三力貧養母雙足病癩者十餘年路逢一道士
謂汝能從吾遊當療汝三喜白母從之道人令閉目執
傘戎勿開視以手挾之忽御風而行耳邊覺颼颼聲竊
微視之下皆巨海洪濤驚怖復瞑移時住足海山山中
沃顏皓髮老人約數十輩道人前揖諸老人曰三無夙
骨汝曷攜之道人曰伊家祖龕中藏有感應篇一帙數
世矣每為子孫解誦世有善根故收之耳未幾三息母
堅請辭歸道人笑曰爾果無夙骨挾之一如往狀至一
雉堞住曰爾從此可歸矣視之乃定海城樓也去家僅
百里計時旬有三日矣

感應
應心

感應篇



感應篇卷一

ハ 6
2476
5

